(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50 1981년10월21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October 21, 1981

한국일보 토론토

OCT 23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해외동포 여권 재발급

총영사관서 내년1월1일~7월31일까지

금년10월1일 이전 발급여권 내년에 무효화

한국정부의 여권법 개정에 따라 한국여권 소지자(81년10월1일 이전 발급)는 내년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해당지역 총영사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토론토 총영사관의 여권담당 박종선 부영사는 20일 "81년 10월1일 이전의 여권은 내년 7월31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여권개정법에 따라 지난10월1일부터 오타와대사관에서는 신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오타와외 지역에서는 내년1월1일 부터 재발급할 예정이다.

캐나다거주 2년이상인 영주권소지 교포들에 대한 교포여권발급, 수료는 미화 20달러, 학생·상용·주재원등 기타 일반여권수수료는 미화 60달러이며 무국적자, 여권분실자를 위한 여행증명서는 미화8달러이다.

개정된 신 여권은 금지된 여행국(공산권 포함)이외에는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유효 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새 여권발급에서 방문, 관광, 학술단기연수, 목적의 일반여권만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으며 목적과 유효기간, 연장등 일체의 기재사항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여권을 분실한 교포는 본국 조회후에 새여권을 발급받게 되며 기한 만료된 여권 소지자는 범법자 혐의가 아닌 경우 재발급된다.

다음은 신규 여권법상의 여행금지 국가인데 이들에 대한 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아 ·불가리아 ·캄보디아 ·쿠바 ·체코 ·동독 ·항가리 ·라오스 ·몽고 ·폴랜드 ·예멘인민공화국 ·중공 ·루마니아 ·남아연방 ·소련 ·베트남 ·유고.

이밖에 상세한 문의는 토론토 총영사관 (416) 598-4608로 하면 된다.

월드시리즈 꿈 깨져

엑스포스,

전통의 양키즈·다저스 대결

(몬트리얼) 월요일(Monday)에게 당한 월요일(19일)의 꿈!

월드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캐나다대 미국의 국가대항전을 기대했던 온 캐나디안의 꿈은 릭·몬데이의 홈런 한방으로 산산 조각났다.

9회초 몬데이의 홈런으로, 팽팽하던 1:1의 균형을 깨고 2:1로 리드 당한 엑스포스의 9회말 공격. 카터 패리스를 세컨, 휘스트에 두고 등장한 선수는 3일전 바엔주엘라의 커브를 홈런으로 만들어 엑스포스의 4:1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제리·화이트. 그가 땅볼을 흘려 올림픽 스타디엄에 모인 5만여 관중들은 눈물을 머금은채 스탠드를 떠나야 했다.

전날 비로 인해 연기됐던 내셔날리그 챔피언 결정전, L.A. 다저스와 몬트리얼·엑스포스는 마지막 한판에서 시종일관 팽팽한 투수전으로 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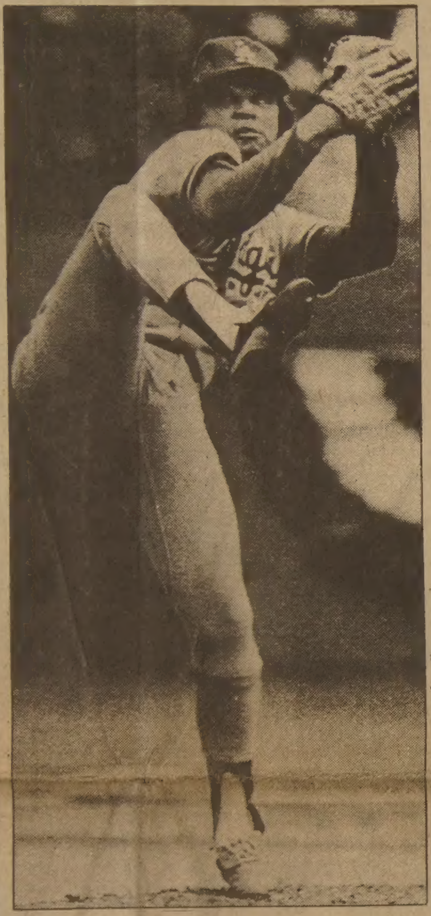
메이저리그 전적 13승 7패, 8번의 완봉승을 거두었고, 금년도 사이영상 후보로 기대되는 다저스의 투수 페란도·바넨주엘라와 2차전에서 다저스를 3:0으로 셧아웃 시켰던 엑스포스의 레이·버리스는 시종일관 투수전으로 맞서 8회까지 각각 1점씩만 허용했다.

그러나 9회초 수비에서 엑스포스의 신임감독 짐·패닝은 투수를 스티브·로저스로 교체해야 했다 (버리스는 8회 말 타석에서 윌라로 대체됐음). 로저스는 금년도 전적 12승8패로 몬트리얼의 기둥투수, N.L. 동부조 우승 결정전에서 필리를 두번이나 이겼고, 다저스와의 3차전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몬데이에게 홈런을 허용, 이날의 패전투수가 돼야 했다.

게임후 패닝 감독은 "마음 아프다. 그러나 우리팀이 이렇게 잘 싸웠다는 것이 더욱 기쁘다. 특히 투수 로저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아메리칸 리그에서 오클랜드를 세번 연달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뉴욕·양키스는 20일 양키스·스타디엄에서 L.A. 다저스와 월드시리즈 1차전을 벌인다. 양키즈와 다저스는 금년으로서 11번째 월드시리즈 대결을 벌인다.

한편 양키즈의 슈퍼스타 레기·잭슨은 부상으로 1차전에는 출전하기 어렵게 됐다.



◇엑스포스 타선을 3안타 1득점으로 막은 다저스의 괴력 신인 바네주엘라.

◇대전후 눈물을 흘리는 엑스포스선수들, 좌로부터 앙드레·다우슨, 워렌 크로마티, 크리스 스피어.

사까다9단 방한 조8단과 TV대국

(서울20일=연합)일본바둑의 대가 사까다(62)9단이 한국기원의 초청으로20일 서울에 도착했다.

면도날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까다 9단은 오는22일 KBS후원으로 조훈현8단과 TV대국을 가지고 23일에는 중학생 유창혁군과 대국을 가질 예정이다.

일본 바둑계를 이끄는사까다 9단은 세계바둑 챔피온쉽 한국주최건에 대해한국기원 인사들과 상의할예정이다.

교구설정 150돌잔치

전국 55만 신도운집

(서울19일=연합)18일전국에서모인 55만명으로 추산되는 가톨릭 신도들이서울 여의도광장에서 한국교구설정 150주년을 기념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전국14교구에서 모인 신도들에게 권력 숭배로 특징지워지는 배금주의와 물질주의가 풍미한 이 시대에 한국인들을 위한 평화와 구원의 순례자가 될 것을 촉구했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한국가톨릭 신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제들과 신도들은 더욱깊은 헌신을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햄 U.T.총장방한 학문교류 촉진위해

토론토대학 총장 제임스·햄 박사는 토론토대학과 한국대학들간의 학자(교수)교환문제등 여러가지 협력관계를 토의하기 위해 일주일 예정으로 18일 서울로 떠났다.

"대학은 경제, 과학, 문화등 제반분야에서 지식의첨단을 걸어야 하기때문에토론토대학과 한국의 유수대학들간의 학자와 프로그램의 활발한 교환은 한국과 캐나다간의 상호이해 증진에 지대한 요소가 될것"이라고 햄 총장은 이륙하기 직전에가진 회견에서 말했다.

캐나다에서 가장크고 명성과 권위가 있는 대학중의 하나인 토론토대학의총책임자인 햄 총장은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현재 토론토대학에는 한국계 학생들이 350명정도 등록하고 있다.

햄 총장은 또 한국정부가 한국학 연구지원을 위해 토론토대학에 재정보조를 한 것에 매우 기쁘고감사하다며 그 결과로 현재12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과 관련된 코스를 택하고있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올해 토론토대학에 한국학 지원차 10만달러의 보조를 한바있다.

조흥, 첫여성 지점장 성차별해소 청신호

(서울20일=연합)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지점장(부장급)이 탄생했다.

시중은행중 가장 역사가 깊은 조흥은행은 19일 본점영업부차장 장도송(44)여사를 오는11월 새로여는 지점 지점장으로 승진발령했다.

장여사는 부산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 54년에 동은행에 입사, 69년에 대리로 승진한후, 작년에 본점영업부차장이 됐다.

이같은 결정은 성차별에 대해 자주비난 해오던 한국여성기구의 환영을 받았다.

현재 한국은행계에는 40명의 여성대리들이 있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10면 발행
한국재벌 특집
7면에 연재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웅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은하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R) 424-2599
635 BLOOR ST. W.
(한국관 앞)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순평양식 모밀냉면

(카나다에서 직접생산 판매중)

모밀냉면이 새로 나왔읍니다.
옛날 고향에서 잡수시던 모밀냉면을 이곳
카나다에서 엄격한 식품검사를 거친 시설을 갖추고
「제일냉면」이라는 상표로 생산, 시판하고 있읍
니다. 한번 잡수시어 보시고 많은 애용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내 각 한국식품점에서 판매되고 있읍니다.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illegible]

미국 한국이민 연간 3만명

거의 반수가 시민권자 초청으로

【뉴욕지사】 작년 한햇동안 한국인 3만여명이 국무성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했음이 9일 밝혀졌다.

국무성 VISA OFFICE의 SETON STABLETON씨는 이날 80회계년도(79년 10월1일~80년 9월30일)에 미국에 들어온 한국인 이민자수가 총 3만6백23명이며 이중 1만2천9백43명이 5항(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으로 6천1백26명이 2항(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미혼 자녀)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다고 말했다.

1980년 회계년도에 6항(숙련 비숙련 노동자 취업이민)은 한국에 배당되지 않았다.

6항은 그러나 81회계년도에는 열려 1850명이 배당되었으나 82회계년도(81년 10월1-82년9월30일)에는 배당이 없다고 이 담당자는 말했다.

STABLETON씨는 81회계년도에 미국에 들어온 한국인 이민자수는 2항이 약9천명,5항이 6,900여명이라고 말했다.

연방 이민국의 JANET GRAHAM 대변인은 8일 79회계년도에 총 2만9천248명의 한국인이 이민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미이민자수는 2항이 증가하고 5항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9회계년도에 5,799명이던 2항이민자수는 80회계년도에 6,126명,81회계년도에 9,000으로 증가했다.

5항은 반면 79회계년도의 10,224명으로 증가했다가 81회계년도에 6,900명으로 떨어졌다.

비자 담당자는 2항신청자가 증가하면 5항 비자발급수가 그만큼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시한폭탄 안고있는 인종문제

고용주 유색인종 차별대우

메트로 토론토는 인종문제로 폭발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지난주 발표된 메트로사회계획위원회(Metro Social Planning Council) 인종관계 조사에서 지적됐다.

소수민족을 고용하거나 승진시키는 데 있어서 고용주들이 많은 편견을 갖고있다고 지적한 동조사는 인종적으로 관련된 "편견과 폭력사건"은 변화된 이민양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주들의 차별대우는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 규제로서 동조사는 구조적기술테스트, 신장과 체중한계, 교육등이 소수민족등을 분리하게 하는 요소들이라고, 이 밝혀다.

동조사는 다운타운 지역 젊은 흑인층들의 75%에 이르는 높은 실업율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온 이민자들의 고실업율등을 취업에 대한 차별대우의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고용된 소수민족, 특히 블랙은 똑같은 교육, 경력과 자격을 갖추었어도 백인들보다 훨씬 지위와 임금이 낮은 직업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동위원회는토론토대학 제프· 라이츠의 조사를 인용 발표했다.

인종차별의 한예로 지난 13일 인권문제 청문회에서 로렌스·베조우씨는 자기의 직장(온타리오교육연구소)에서 이유없는 해고를 당했다며 자기의 직장은 인종, 국적에 따라 승진이나 취업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폭로했다.

선교사학원 탄생

3세계 선교사교육 역점

(서울17일=연합)백년전 한국에 개신교가 소개된이래 처음으로 선교사 교육을 위한 학교가 설립됐다.

한국학생 5백명과 아시아 여러나라 에서온 70명의 학생들을 지금까지 교육해온 동소선교사 학원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

제3세계에서 온 선교사들을 교육하는것이 주목적인 동소선교사 학원은15일 첫예배를 드렸다.

제3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선교사교육기관으로 알려진 동소학원은 아시아선교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설립됐다.

동위원회는 회원국 선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73년에 구성됐다.

처음 14개의 회원국을가진 동위원회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3국이 공산화됨으로써 현재 한국, 일본, 홍콩, 인도, 파키스탄, 뱅글라데쉬등 11개국이 됐다.

◇맹연습 하는 알리. 오는 12월5일 바하마 낫소에서 벌어질 캐나다 챔피온 트레버 버빅과 대전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배가 처진것이 오버·웨이트를 기록하고있다.

석학 스트라우스 방한

전후 구조주의 선구자

(서울13일=연합)방한중인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사회인류학자이며 권위있는 아카데믹 프랑쉐즈 회원인 사방·클라우드.레비·스트라우스는 12일 한국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온 샤마니즘, 불교, 유교와같은 한국 전통문화에 접해보고, 발달원인을 조사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73살의 벨기에태생 프랑스석학은 서울 한국학연구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전후 세계 구조주의학파(School of Structuralism)를 대표하는 지도급 프랑스 철학자인 레비·스트라우스는 동 연구소의 초청으로 11일 서울에 도착, 3주간 체류예정이다.

레비·스트라우스는 한국과같이 전통유산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진력하는인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구조주의와 그것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레비·스트라우스는 동양의 유교에도 구조주의의 인식론이있었으며 서양에서도 소크라테스(469—399BC) 이전에 그러한 철학적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구조주의는 철저한 과학적 논리에 근거한 가장좋은 인간해석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방한중 여러차례에 걸쳐 "동서양의 비교연구"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가질 노석학은 현재 칼레지·드·프랑스에서 사회학과 인류학을 가르친다. 그의저서로는"구조주의적 인류학"(Structural Anthropology) "야만인의 마음"(The Savage Mind)과 "친족의 기본구조"((Elementary Structures of Kinship)등이있다.

※인식론(Epistemology): 철학의 일분야로 거식의근원, 양상 한계를 다루는 학문.

※구조주의(Structuralism: 기능(Function)보다 구조(Structure)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이론.

오타와국제회의참석

한국, 중소기업대표

(서울17일=연합)한국중소기업연맹은 18~22일 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8차 국제중소기업심포지움에 27명의 대표를 파견했다.

동연맹의 유기청 회장이 인솔하는 대표단은 중소기업, 금융기업, 학계를 총망라하여 선발됐다.

50개국에서온 7백여명의 대표들은 중소기업발전의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동연맹 대변인이 밝혔다.

교민동정

◆정기태(캐나다한인태권도협회 회장)=지난 10일 열린 최초 통합태권도대회를 무사히 치렀다. 같은 날 조카 두연군은 우리말잘하기대회에서 웅변부 1등을 차지해 더욱 싱글벙글.

◆하영화(전 래디오한국 P'D)=얼마전 리치몬드힐로 이주,가게를 인수해 눈코뜰 사이가 없는데도 틈을 짜내어 열흘간 모국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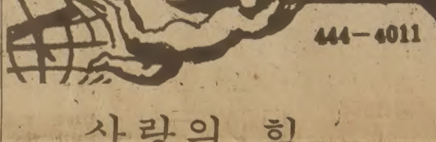
서울에있는 동생을 찾아보고,친지들을 두루 만나보고,지난 17일 귀임했다.

— 바로잡음 —

지난15일자 우리말 잘하기 대회 기사중 웅변부 1등 정두연군의 소속은 쇼핑한글학교의 오기 였읍니다. 정군은 정기용씨 장남으로 6학년 학생입니다.

걸 작 漫 畵

『[illegible] 항의행진도 있군。』
(난처녀요)
"Must be another PROTEST marcher."



사랑의 힘

안 상 엽

사람은 어제와 내일의 중간인 오늘에 산다. 어제 있었던 사람이 오늘은 없고, 오늘 없었던 사람이 내일 와 서있다. 이것을 좁히고 좁혀 축소시킨다면"지금" 이라는 순간이 될 것이다. 즉 하나의 "점"이다.

기하학에서"선"(Line)의 정의를"점의 연속"으로 말한다면, 인생의 길도 하루하루의 점철일 것이다.

예수께서 인생생활의 삼대조건, 즉 입고, 먹고, 사는 "의식주"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실때"내일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족하다"(마태6 : 34)라고 하신말씀에 인생을 참되게 완성시켜가는 놀라운 사실을 담아 주셨다. 행복과 생의만족을 추구하면서 끝장을 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인생이지만 내일이 오면 또다시 내일대로의 괴로움이 있을것을 예고하신 진리인 것이다.

사람은 과거에 살수도 없고, 미래 속에서도 살 수 없는 현재의 존재다. 왜냐하면 몸을 가진 자연(Physis)이기 때문이다. 흙이나 돌같은 물체도 아니며, 그렇다고 또한 천사같은 영체나 환상의 대상도 아니다. 이자연이란 영원(Immortal)한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가는것(Mortal)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한 것을 담고있는 자연으로서 미완성된 불완전(Imperfect)한 존재인 것이다. 제아무리 영원하고 완전한것을 말하나 아직도자연으로있는 존재이다.

성서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생길은 실상 현재라는 시간이 없고, 다만 조물주 하나님의뜻을 오늘, 혹은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완성(Perfect)시키기 위해 달려가는 불완전한 발걸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간 날들은 좋거나 나쁘거나 완성된 생이요, 앞으로 남은 날들은 미완성인것 뿐이다. 지나간 것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것을 희망하는것이 삶의자세이다. 이 두가지는 실상 현재라는 지금이 아니다. 그러므로 먼 미래를 희망하면서 현재를 무시하는 것은 지나간 것만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들 못지않게 더욱 잘못을 하고있는 삶인 것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불변하시다" 는 진리는 과거나 혹은 미래만을 뜻함이 아니라, 오히려현재를 올바른 자세로 서지 못하면 장래를 기대할수 없고, 올바른 장래가 없음은 올바른 과거도 있을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귀중한 삶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자세는 곧 살아있는 희망이 되고, 그 희망속에서, 달려가는 발걸음 뒤에는 아름답고 멋있는 어제들이 남을 것이다.

쏜 화살이 잠시도 멈추지않고 표적을 향해 날아갈때 종국의 목적에 달하듯, 하루하루의 생애속에 꺾이지 않는 힘이 나를 밀어줄때 미완성은 점점 없어지고, 결국은 온전한 완성이 오게된다는 말이다.

희망은 모든것을 뚫고 나가는 화살이다.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죽음같은 그늘도 뚫고야 얻는 목표이다. 그 힘이란 우연도 아니며, 불완전한 인간의노력도 아니며, 오직"사랑"이라는 힘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생명력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그 사랑이 아픔과 가난과 외로움과 슬픔과 죽음을 뚫게 했다. 이 사랑의 힘이 없을때 죄인이 된다. 왜냐하면 불신하고 희망을 꺾어 분쟁과 싸움과 슬픔과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의 힘이 있을때는 관계를 맺고, 약동하고, 화답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기쁨이 있게한다.

사랑의 힘은 삶의 힘이요, 새롭게 하는 창조력이다.

(선교교회 담임목사)

누가 사다트를 죽였는가

「이스라엘과의 握手」가 그의 生命단축

▲중동의 문제아 카다피(오른쪽). 아라파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다트는 카다피와 견원지간이었다.

현장지휘는 砲兵將校인 이슬람불리 중위 軍을 너무 지나치게 믿은것이 결정적失手

잠잘때에도 항상 베개밑에 권총둔 사다트 防彈조끼 입는것은 大統領답지않다 생각

누가 사다트를 죽였는가.

사건현장을 지휘한 범인은 퍼레이드에 참가했던 포병부대의 중위카레드·이슬람불리로 밝혀졌으며 4명중 1명은 사다트의 경호원 응사에 죽고3명은 부상을 입은채 체포되었다.

이슬람불리중위의 형은 극우 모슬렘교단체인「알타크퍼·왈·히즈라」의 멤버로 이집트당국에의해 투옥되었다. 이 광신단체는 이집트내에 4천여명의 비밀회원을 갖고 있으며 1만여명의 동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손에는 코란 그리고 다른 한손에는 칼』을 가진 모슬렘교 원리실천 결사단체다. 65년 무스타파가 창설했으며 77년 이집트 종교장관을 납치하여 살해한 혐의로 무스타파는 사형당했다. 이때부터 사다트에 대한 증오가 본격화되어 몇번이나 암살기도가 있었다. 얼마전 사다트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후 돌아가는길에 비엔나에 들르기로 되어 있었으나 암살계획 소문이 나돌아 비엔나 일정이 취소되기도 했었다.

사다트는 지난달 극우파 모슬렘교도 1천5백명을 체포했으나 군인은 한명도 검거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다트가 군을 너무 믿은것은 큰실수였다고 이스라엘정보국은 분석하고 있다.

범인 4명중 이슬람불리중위를 제외하고는 현역군인이 아니다. 이들은 군인을 가장하고 퍼레이드행렬에 교묘하게 끼어들었다.

이슬람불리는 퍼레이드 3일전 『소대원 3명이 몸이아파 퍼레이드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기때문에 다른 소대에서 병력을3명 보충했다』고 상부에 보고했었다고 한다.

군방첩대는 행사당일에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장병들의 무기에 혹시 실탄이 있지않나 체크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실탄과 수류탄을 갖고 있었으며 더구나 군인도 아닌 모슬렘교도 3명이 트럭을 올라탈수있었는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하나의 수수께끼는 퍼레이드 사열대에 배치된 사다트의 경호원들이 자동화기를 갖고있지 않았으며 그나마 일부는 실탄없는 권총을 차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범인들이 난사하며 돌격해 들어올때도 경호원들이 응사하지 않은것도 의문에 싸여있다.

사다트의 부인인 지한여사는 ABC-TV의 인터뷰에서 자기 남편은 잠잘때에도 베개밑에 권총을 두는것을 습관처럼 해왔으나 방탄조끼 입는것은 아주 싫어했다고 말했다. 방탄조끼를 껴입는 것은 대통령답지 않다는 생각을 사다트는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나의 남편이 무릎을 꿇고 총에 맞은것이 아니라 서서 총에 맞아 쓸어진것에 긍지를 느낍니다』라고 지한여사는 덧붙였다.

암살단의 배후에는 리비아의 대통령 카다피가 관련되었을지 모른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으나 아직은 이렇다할 확증이 없다. 카다피는 사다트가 암살당하자 공휴일을 선포할 정도로 기뻐하고있다.

사다트가 이스라엘의 베긴 수상과 캠프데이빗평화협정을 맺고 79년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후 아랍제국에는 사다트의 적이 갑자기 늘어났다. 이가운데도 카다피는 사다트와 글자 그대로 원수지간 이었다. 사다트대통령은 최근 이집트가 리비아를 선제공격하겠다는 내용을 미국에 통보, 무기지원을 독촉하면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군과 이집트군 합동으로 BRIGHT STAR 라는 기동훈련도 곧 갖도록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카다피가 극도로 사다트를 미워한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사다트는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체결로 중동화약고의 폭발위기를 수습했으며 이 공로로 노벨평화상까지 탔으나 아랍동료국에는「배반자」로 낙인 찍혔었다. 그의 비극은 「이스라엘과의 악수」가 결국 원인이 되었으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중동평화를 적극 추진해온 그의 신념때문에 「금세기의 위대한 정치가」로 인정받을수 있었다.

▲생포된 저격범. 이들은 퍼레이드전에 군방첩대가 실탄소지유무를 체크 했는데도 교묘히 수류탄까지 갖고 들어오는데 성공했다.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 MEADOWGLEN PLACE # 202A , SCARB. ONT M1G 2V6
☎ : (B)438-6440 (R)439-133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우황청심환 ●우황 ●사향
●웅담 ●녹용 ●정주사 ●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 (416) 977-9818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CHINA ROYAL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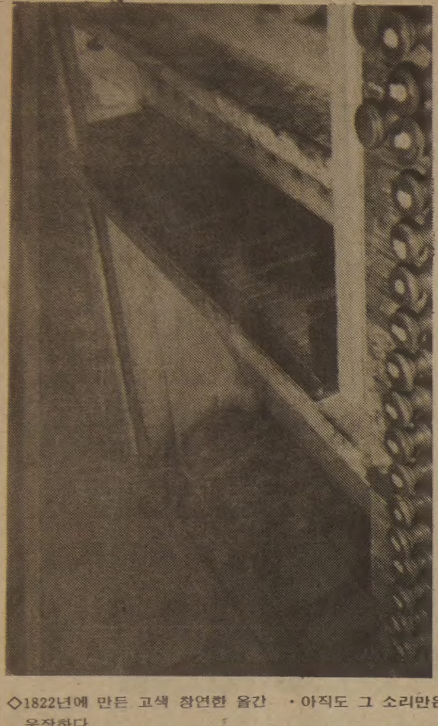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예술의 향기 (4)
보물을 찾으러 가다

유 회 자(음악박사)



◇1822년에 만든 고색 창연한 올간 ·아직도 그 소리만은 웅장하다.

아침에 4시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내가 싸인한 올간을 찾아 깨끗한 시외버스를 타고 30여마일의 속도로 약 15분간 가니 목적한 작은마을에 도착했다.

1822년에만든 올간이어서 매우 흥미가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불편을 무릅쓰고 찾아가는 것이다.

버스에서 내려서봬 높은 산등성이를 따라 한참 올라가니 마을과 작은도시가 저 아래 한 눈에 보이기시작한다. 이태리 시골은 한국의 시골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 과히 높지않은산들이 나무로 빽차 파랗게 보이며, 군데군데 빨간 지붕의 집들이 산등성이에보이는 한가하고 아름다운시골풍경이다. 단지 남쪽의 강한 햇빛을 막기위하여유리창에는 모두 나무로만든 덧문이 닫혀있어서 유리창 없는 답답한 집을 보는듯 한 느낌이다.

한 10여분 올라갔는데엘길에 집들은 보이지만 찾아가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 혹시나 잘못왔나 싶어 올라오는차를 멈추게했다. 교회를 찾아가노라 했더니 아가씨 둘이 타고오다 같이 차에타라고 한다. 다시 꾸불렁 꾸불렁 두어차례 올라가니 이곳이라면서 친절히 안내해 준다.

교회 비슷한곳이 있어서 혹시 이것인가 하고 층계로 올라가 옆문에가서 문을 두드리니 한 아낙네가 문을 연다. 2살 정도의 사내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다락방 비슷한 곳이 아마도 자기네 살림집인 모양이다. 교회냐고 하니 아니라고 하면서 더 위쪽으로 가라고 하는 모양인데 못알아 듣는것 같으니 자기가 손수 따라 나선다. 교회일을 보는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 할아버지 한분이 나온다. 올간연습하러 왔다고 하니"아하!" 하고 반가운 기색으로 맞는다.

큼직한 열쇠뭉치를 들고 나와 마당을 건너 큰 돌집을 향해갔다. 아주 못생긴 우악스런 큰 돌건물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12세기에 이태리가 군소도시로 나누어져 있을때 피스토이아와 루카라는 이웃도시와 전쟁을 했는데, 이교회가 피스토이아군의 요새로 쓰여졌으며, 교회의 종탑은 군인들이 망을보는탑으로도 쓰이고, 또 피난처로도 쓰여졌다고 한다.

교회정면은 보이지 않고, 오래되어 때묻은 세면이 군데군데 떨어져나간 이 육중한 돌집뒤로 가니 사람 키보다 작은 통문이 하나 있다. 긴 열쇠를 넣고 한참 씨름을 하니 문이 열린다. 동굴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든다.

자기를 따라오라고 한다. 마침 손자인지 대여섯살난 사내아이가 따라왔다. 돌층계를 따라 올라가니 문이 또하나 나타난다. 이번엔 자그마한 열쇠이다. 문을열고 들어서는 순간눈과입을 모두 크게 벌리지 않을수 없었다. 내 앞에넓직하고 높은 천정에 자주빛과 짙은 나무빛깔이 주가된 조각과 그림 휘장등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천주교 성당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오!"하고 저절로 감탄사를 뱉었다. 조용하고엄숙한 이곳에 하느님이 쉬고 계신듯, 몸에 전율을 느낄만큼 신비한 감흥을 일으킨다. 내가 서 있는곳이 바로 올간이 놓여있는 뒷편 2층인 것이다.

어찌하여 이 아름다운성전이 이다지도 멀리, 겉모양도 보잘것 없는 육중한 돌집안에 거의 신비를 발사하듯, 아무 말없이 몇백년동안 지내오고 있었단말인가!

할아버지가 나무로 거칠게만든 올간 뚜껑을 연다. 비로드 덮개아래 자그마한 올간의 건반 하나가 조촐히 나타난다 발로 연주하는 건반을 보니 북미에서 보는 것보다 반정도의 건반수에 길이도 아주 짧게 생긴 건반이 보인다. 옆에는 가지각색의 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스톱(손잡이)가 20여개 보인다.

1822년이니까 바흐가 죽은지 70년후, 모찰트도이미 죽었고, 베토벤이 태어나기 5년전에 만들어진 이악기는 거칠게 놓아둔 올간케이스라든지, 스톱옆에 붙어있는 낡은 이름표를본다든지, 중간에 아무도 손을대지않은 진짜 그대로보존돼 있는것같다. 그 시대에 쓰여진 음악을 연주하려면 그때 당시 어떤식의 악기가 있었는가를 아는것이 매우 중요한 공부의 하나이다. 말하자면 음악 해석을 하는데 그치는 방법이라든가, 소리구성 이라든가, 손가락 사용이라든가하는 등등에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데 직접관련이 있는 것이다.

자그마한 올간의자에 앉았다. 스톱들을 하나하나 빼보며 소리를 들어본다. 북미에서 20세기에 만들어진 올간소리와는 상상할수 없이 다르다. 맑고 투명한 개성이 뚜렷한 소리들이 퍼져나온다. 이론으로 또는 책을 통하여 얻은 지식들, 이해하기 힘들었던소리의 구성방법등이 한눈에 이해가되기 시작한다.

"아하!"다시 또한번 감탄사를 낼수밖에. 다음 세미나시간에 대어 가려면한시간도 못있어야 하는데, 이 멀리 보물찾기를 하듯 찾아온 이곳, 이 아름다운 소리들을 귀에 꼭 담아가고 싶은마음에 두시간을머물고 내려왔다.

다시 버스정유장에서 기다리고 있노라니 자동차가 하나 와서 멈춘다. 태워주겠다는 뜻인가보다. 중년의 남자분 두분이 자리를 내준다. 북미같으면 겁이나서 타지않았겠지만 이태리 사람들이 한국사람들처럼인심도 좋고, 서양사람처럼깍쟁이들은 아닌것같아 자동차에 탔다. 피스토이아에간다고 했다. 이분들은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나는 이태리어를 하나도 못하고, 그동안 얻어들은 단어들, 손짓, 표정, 온갖것을 다 써가며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 아주 통하지 못할때는 크게 한번웃고, 단어 하나라도 통하면 반갑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또한번 웃고…인간미는 말없이도 통할수 있구나 생각하며 피스토이아를 향해달렸다.

(계속)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80)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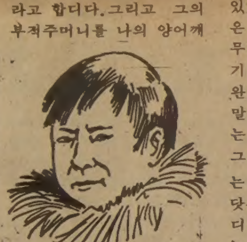
"이 훌륭한국은 나같은 바보에게는 너무 과분할겁니다. 오네카우와 그의 부인이 쓰는 이 좋은 침상에 앉아있는 이 바보같은 알렉카우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기로 하지요"그는잠시 멈춘후에 두껍고흰 번쩍거리는이글루의 벽을 침침한 불빛속에서 둘러보더니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여러분은 헥카우의 아들 벨리카리가 지난가을 어떻게해서 하늘의 검은신을발견했는지 들어서 알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나역시 헥카우한테 들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그때 사람이라기 보다는 곰에 더 가까운 아틴휜트라고 불리며 어떤새의 신보다 훨씬 힘이센 신을 모시고 있었읍니다. 내집 사람인 이칼룩과 내가 당신들이 있는 이 캠프로 여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을때 헥카우는 혹시 모든 기후의신인 카일라에게 무사히 도착할수 있게 도와줍시사하고 빌어보는게 어떠냐고하더군요. 이렇게 하는데누가 싫다고 하겠소? 그래서 나는 헥카우가 아는신을통해서 카일라에게 부탁해달라고 했읍죠. 그랬더니 헥카우는 자기아들 벨리카리를 불러서 나를위해 카일라에게 빌도록 했답니다.

내가 바보처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벨리카리가그의늙은 아버지 헥카우처럼 샤만이 아니라는 이유때문에 그것을 크게 믿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체면을 보아서 벨리카리가 그의 아버지가 하라는대로 맡겨 버렸지요. 그는 이글루의 중앙에 올라서더니목청을 돋우어 까마귀인 공중의 검은신을 부릅디다.

그러더니 잠시후에 방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놀랍게도 그의 목구멍에서 까마귀의 거칠은 목소리가 다섯번계속해서 울려나왔읍니다.

난 조금 두려워 지기도 했지만 나의신 아틴휘트처럼 그 검은신이 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벨리카리가 깨어나서 하는말이 그는 카일라와 전혀 대화를 못했지만 까마귀의 신을 보았는데, 이 신은 다음 5일동안은 바랜의 평원으로 여행을 하지말라고 경고 하더라고 합디다. 그렇지 않으면 카일라의 무서운 바람을 만나 다시는 이글루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날씨가 매우 청명했기 때문에 나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나는 생각하기를 만일 이 소년이 카일라와 대화를 직접하지 못했다면그 의신(까마귀)이 신통하지 않을것이라고 믿었지요. 나는 나의신 아틴휘트를 믿었읍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로 우리는 짐을꾸려늙은 헥카우가 아들의 말을 무시한다고 노발대발 했지만 북쪽으로 길을떠나 오고 말았지요. 우리가 떠나올무렵 벨리카리는 까마귀의 날개죽지털을 한개 주면서 내가만일 불행을 당하게되면 그것을 갖고 도움을 청하라고 합디다. 그리고 그의 부적주머니를 나의 양어깨



밑으로 스치며 하늘에대고 주문을 외우더군요. 우리의 한 핏줄을나눈 이 사람을 보살펴 주소서. 만일 이 사람이 원할때는 당신의 바위처럼 거칠은 목소리로이 사람에게 말해 주소서. 또 만일 이 사람이 당신의 도움을 원하면 그의눈을 뜨게하여 이 사람이 갈곳을 보여주소서! 그런다음 우리는 북쪽으로 떠나왔읍니다. 우리가 삭막한 평원을 여행한지 하룻만에 까마귀의신이 말한 것처럼 바람의신 카일라를 만났지 뭡니까. 우리는 이글루를 만들려고 둘러보아도 적당한 눈을 찾아볼수가 없었어요. 할수없이 개들을 바람이부는 정면으로 몰고가면서셀매위에서 얼어죽지 않으려고 서로 부둥켜안고 앉아 있었읍니다. 그러나 바람은 정말 마귀와 같았고, 너무나 자주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나는 바보처럼 완전히 들판에서 길을잃고 말았답니다. 마침내 우리는 썰매옆에 아무렇게나조그만 캠프를 만들어 피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다음 닷새동안 춥고 배고픔을견디어야 했지요. 정말로 나는 식량이 다 떨어졌기때문에 걱정이되고 무서워졌읍니다. 폭풍이 잠잠해지자 여기있는 제 아내가 그소년 벨리카리의 말을 기억하고, 날 보고 산위에 올라가 검은신에게 도움을청하라고 하더군요. 나는 무서움을 참고 산위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전혀 낯선 곳이었읍니다. 나의 신 아틴휘트는 도움이 되지않았읍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힘을 다하여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질렀읍니다.

(계속)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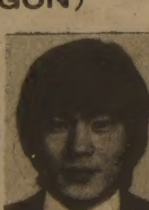
문의처
본 사 광고국
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416) 533-2361~4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블 루 어 안 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GM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됐읍니다.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 532-0602

<김용순 무용연구소 안내>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심으로 본 김용순 무용연구소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조국문화의 올바른 이해및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많은 성장을 모국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 한국공연을 계획하고 무용단원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앞으로 더욱 사랑해 주시리라 믿으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연습시작 : 11월7일(첫토요일)
1982년도 계획
6월 : 제3회 무용발표회
7월 : 한국방문및 공연
12월 : 자선 공연
문의전화 : 751-8891(오후7시이후)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저녁 풀타임 또는 파타임, 점심 파트타임 웨이츄레스 구함
☎ : 757−6334

풀타임 남자헬퍼구함, 경험자에 한함 :
오후3시~밤12시, QUEEN과 DUFFERIN
☎ : 534−3338(아침9시~3시까지 전화) 미세스 김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
시간당 $4 이상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362−2300

세일즈 하실분 구함 :
GOOD코미숀(오전7시~오전10시 연락바람)
☎ 492−7505

경험있는 가게 헬퍼구함 :
영·스트릿과 에그린톤지역
☎ : 483−7444

여자 캐쉬어 구함
시간당 $4
☎ : 638−2553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경험있는 파타임
스카보로지역 학생헬퍼 구합니다.
☎ : 267−4770

얌전한 아기를 보아주실분 구함.
입주 또는 출퇴근 가능.
SCARB. E. ☎ : 284−3031

한국일보 판매처
◎ 각 식품점 ◎ 본사
※ 미씨사가 지역 주민들은 한밭식품에서 한국일보를 구입할수 있읍니다.

매매및 양도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MAIN & GERRARD ST. 지역
☎ : 691−3363

핀볼 기계와 비데오 게임 : 액썰런트 비즈네스 매매
☎ : 767−7998, 762−5455 OR 245−5544
PAGER #4701

벡커 프렌차이스 매매 :
좋은 비지네스 직접내방원함(FINCH & BIRTCHMOUNT)
(스카보로지역) ☎ : 293−1893 (CALL 9AM~3PM)

매매(PINBALL MACHINE)
성능좋은 ELECTRIC혹은 ELECTRONIC TYPE 14대
가격 개당 $275~$475.
☎ : 266−5037

오릴리아지역·매상좋은 비지니스 :
그로서리·바라이어티·미니마켙, 연매상 35만달러 이상, 3베드룸 살림집및 2베드룸 아파트 있음.
포스트 오피스.
문의 : ELEANOR TODISH (1) 862−0788 ext. 53
A. E. LEPAGE(ONT.) LTD.

좋은지역에 위치한 바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주매상 : $3500~4000 리스 : 4년
ASKING : 29000+스탁(좋은 OFFER를 줌)
주소 : 1430 DUNDAS W.
☎ : 531−0773 Mr.김 (직접내방바람)

스토아달린 빌딩 팝니다.
☎ : 653−4633
Mrs.코메스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DONUTS SHOP매매
이윤 좋고 매우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 시간짧음
(주6일 열음, 하루 11시간 영업)
관심 있는분은 직접 내방요함.
55 KENSINGTON AVE.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①주매상 $4,900과 $3,500, 2층에 살림집 있음.
②주6일(핀볼과 비데오게임 17개 포함)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 : 481−3443, 745−5485 황 순 일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530−0748 DAVID

일본식 식당과 SHOGUN라운지 매매 :
일본식 식당 : 85좌석, 라운지 : 105좌석,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개업한지 3개월 되었음.
동업자나 사실분은 Correct Call로 연락바람.
HALIFAX, N. S.
☎ : 집(902) 443−5789, 식당 : (902) 429−6155
라운지 : (902) 429−6955. MR. KIM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빌딩매매 : ASKING $490,000. 4개 아파트와 음식점 최저 다운은 $100,000.
464 SHERBOURNE ST. 직접내방 요함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DRY CLEARNING PLANT FOR SALE
2 STORES GOOD INCOME
☎ : 922−2241(ROSEDALE AREA)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DUPONT & SYMINGTON
☎ : 537−0892

개인집 팝니다 : 11½% 몰개지 2(4개 화장실과 목욕탕) 2가족 싸이즈도됨, $10,000다운(DAVENPORT & SYMINGTON) ☎ : 536−8506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550
☎ : 523 : 7101(해밀톤)

구 혼

"구 혼"
냉동기술 1급 자격증 소유한 31세의 대졸남성 정숙한 여성원함.
☎ : 654−1922. 김 윤 수

분 실

·시민권 분실공고 :
박광순(PARK, KWANG SOON),
☎ : 534−0228, 1395 DAVENPORT RD.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6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윤 수

악 기 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여 행 사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카펫·카텐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추리냉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자동차 고장??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풋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울한의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 × 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피·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손꽃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기 타

SOME JEWELLERY쏘메쎄라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 535−7772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월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3963 MR. 오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트러스트
☎ : (B) 752−3111, (R) 298−2546
주택전문 곽 석 용

CITY OF TORONTO
표준시각으로의 변경
1981년 10월25일(일)
시의회 결의에 따라 81년4월26일부터 10월25일간에는 여름 일광절약시간(섬머타임)이 실시 됐음.
이제 시민들은 25일 새벽2시를 기해 시계 바늘을 1시간씩 꺼꾸로 돌려놓기 바람.
ARTHUR C. EGGLETON 시장

돌개바람 불다 ㉚
金趙 光善 培作 畫作 <229>

[illegibl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嶺湖 마음여는 和合의 大路"

全대통령致辭 올림픽高速道(光州-大邱)命名

"道路는 國民統合 촉진역할"
東西관통의 大役事…繁榮기약"

【潭陽=尹國炳기자】 全斗煥 대통령은 16일 『국가의 近代化는 사회構成員간의 統合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있으며,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만남의 기회가 빈번해지고 수월해지면 상호이해와 共感의 폭은 신속히 늘어나게 될것』이라고 전제하고『光州-大邱간 88올림픽고속도로의 건설은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인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하오 全南潭陽郡潭陽邑 潭陽工高에서 거행된 光州-大邱간의 「88올림픽고속도로」 起工式에 참석, 致辭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마침 88년 올림픽대회의 서울유치라는 경사스러운 일도 겹쳤기 때문에 이를 기리는 뜻에서 정부는 이 도로를 「88올림픽고속도로」로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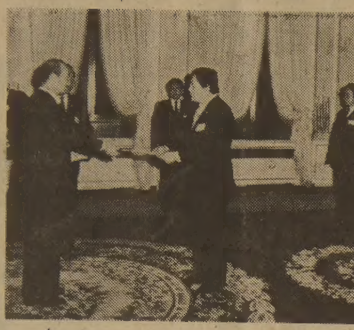
全대통령은 치사에서 『도로는 멀리 떨어진 지역간의 사람과 物資의 왕래뿐만 아니라 풍습과 의견을 소통시켜주고 人情과 의리를 오가게함으로써 국민統合의 촉진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설명했다。

全대통령은 또 光州-大邱간 지역에는 小白산맥이 南北으로 뻗어있어 地形的인조건으로 산맥東西의 두지역은 오랜역사를 함께 해오면서도 상호간의 人的、物的 교류를 만족스럽게 해오지 못한것이 사실이며、이러한 상황은 有形的인 교류뿐만이 아니라 無形的인 정신적인 교류에도 적지않은 제약요소로 적용해 왔던것을 인정하지않을수 없다』고 말하고『온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세계속의 한국을 가꾸어나가야 할 이때에 우리는 이러한 제약들을 하나하나 극복해나가지않으면안되겠다』고강조했다。

全대통령은『이 도로가 완공되는날 두도시를 잇는 走行시간은 두시간대로 대폭 줄어지게 될것이며、이것은 그동안 地形的인 조건으로 멀리떨어져 살아야했던 두지역이 「半나절 生活圈」으로 섬큼다가서게되는것을 뜻한다』고 말하고『이와함께 마음의 고속도로도 활짝열려 統合과 和合의大路를 이루게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全대통령은 이어 『오늘날과같이 每事에 고도의기동력과 정확한정보가 더없이 요구되는 高速사회、情報化시대에있어 고속도로가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중하다고하지않을수 없다』고 지적하고『88올림픽고속도로는 이런의미에서 국가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또하나의계기를 획기적으로 마련해 줄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88올림픽고속도로건설은 험한 地帶를 뚫어야하는 공사인만큼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예상되며 정부나 施工회사가 만반의준비를갖추어 공사를 진행하겠지만 워낙 힘드는 大役事이기때문에 국민여러분들의 자상한 보살핌과 적극적인성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말하고『오늘의삽질이 평화의 고속도로를 鴨綠江하구의 新義州까지 뻗어가게하는 준비작업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땀흘려 노력할것을 본인은 국민 모두에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發破式에도 참석

【潭陽·高靈=尹國炳기자】 全斗煥 대통령은16일하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全南潭陽郡潭陽邑 潭陽工高에서 거행된 大邱-光州간을 잇는 88올림픽 고속도로 起工式에 참석하고 이어 慶北高靈郡高靈邑池山洞에서 있은 發破式에 참석했다。

全長百75㎞ 어제起工
潭陽서 2천억들여 84년9월完工

大邱-光州간을 연결하는 東西고속도로 건설공사기공식이 16일하오 3시 慶北達城郡高靈邑 池山洞과 全南潭陽郡 潭陽공고 운동장 현지에서 全斗煥 대통령과 金周南 건설부장관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慶北達城郡 玉浦邑에서 全南潭陽郡武貞面까지 1백75.2㎞의 길이로 건설되는東西고속도로는 지난해 9월4일 全斗煥 대통령이 全北지방을 순시하던중 嶺南과湖南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방안을검토하라고 지시한이후 1년1개월여의 준비작업끝에 이날 기공식을 갖게된 것이다。

총공사비 2천2백60억원이 투입돼 오는84년9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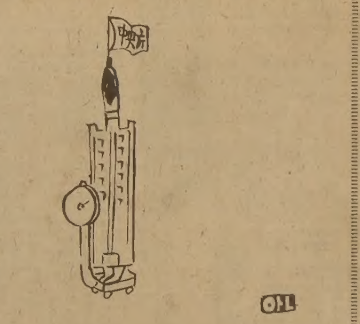
東西고속도로는 8개공구로 나뉘어 現代建設등 8개 건설업체가 각각 한공구씩 시공하게되며 앞으로 4차선 목표로 확장한다는 전제아래 4차선 용지 부지위에 우선 도로폭13.2m、車道폭7.2m의 2차선으로 건설된다。

이고속도로는 험준한 小白산맥을 횡단하게되므로 경사가 급한 구간에는 느린 차량이 대피 주행할수있는 登坂차선을 15개나 설치하는것을 비롯 玉浦·海印寺등 8개입체교차、加祚·智異山등 2개소의 평면교차등 10개 인터체인지와 淳昌、大山、論工등 9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생긴다。

智異山 德裕山 伽倻山 국립공원을 관통、관광개발에도 기여하게될 이 고속도로 공사에는 鋼材 1만1천8백80톤、철근 3만4천5백60톤、시멘트 8백15만부대등이 투입되며 연인원 9백14만명、22만7천대의 중장비가 동원돼 터널 4개소 2천50m와 교량 1백8개소 8천2백60m등을 건설하게된다。

東西고속도로가 완공되면 大邱-光州간 거리가 지금의 1백95㎞에서 1백75㎞로 20㎞ 단축되고 자동차 주행시간은 3시간30분에서 2시간30분으로 1시간 짧아지며 영남과 호남간의 지역교류가 활발해질 뿐만아니라 관광자원개발이 크게 활기를 띨것으로 전망된다。

社會漫評



몰라보게 살을 뺐읍니다…

北傀미사일攻擊후 큰變化없어

美國務省次官補 「홀드리지」밝혀
"한국 어려울때만 對美추파"

【워싱턴15日=劉日演특파원】 존·홀드리지 美국무성 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15일 북한은 한국이 어려운 고비에 섰을때를 골라 한국의 참여없이 대화를 갖자는등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미국에 접근을 시도해왔으나 한국이 강력한 대통령아래 국민이 단합돼있는 상황아래서 그런기도는 아무런 정치적 진전을 볼수없었다고 15일 말했다。

홀드리지차관보는 본코리아타임스 특파원과 단독으로 만난자리에서 이어 美정찰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이후 북한의 태도에 아직 아무런 변화도 감지되지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 내셔널클럽에서 경제발전과 안보、그리고 정치발전의 3脚정책을 강조한 全斗煥 대통령의 연설에 특별한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자기는 내년도 한국을 방문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홀드리지차관보는 이어 중공 공산당지도자들이 대만의 蔣經國총통을 초청한데 대해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안은 1972년의 上海공동성명에 기초를 두어야한다。우리는 중국인 스스로에 의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고『이 문제에서 미국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일본이 자체경제규모에 상응하는만큼 방위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확대규모는 동북아에 존재하는 위협의 성격에 따라 일본이 판단할 문제이다』고말했다。

舊體制 殘滓청산方案논의
南총리、어제밤 與野黨3役 초치

南悳祐국무총리는 16일 하오7시 民正、民韓、國民당의 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등 3당간부들과 議政同友會회장을 三淸洞 총리공관으로 초청、만찬을 같이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국회와 행정부간의 협조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舊時代의 殘滓를 청산하기위해 71년 共和黨정부가 제정한 「國家保衛에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기위해 각정당들이 공동으로 이번 국회회기중에 제안、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자리에서는 대화정치의 원활을 위해 또 각정당의 黨職者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여 현안문제를 협의하기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도 논의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자리에서는 또 최근의 低質炭사건을 비롯한 국내외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측은 국회에 제출한 새해예산안과 각종세법개정안등에 대해 각정당의 협조를 요청한것으로 전해졌다。

國家機能 전면 재정비

1만3천行政기능 市·郡등 下部기관移讓
減縮된 고급人力 國營業體 轉職억제 검토
내년에 下位公務員 신규채용은 대폭 늘려

정부는 기구축소작업에 이어 내년중에 1만3천여種의 국가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정부역할을 다시 정립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행정기능과 권한을 下部기관이나 民間기관에 과감하게 移讓하는 작업을 벌일것으로알려졌다。

이에따라 市、郡등 下級기관에대해 인원과예산을 補強하고 이들기관에 중복되는감독기능과 보고체제를 단순화시켜주는 작업도 펴기로 했다。

정부는 下級기관 보강책의 하나로 내년에는 7級(主事補)~9급(書記補)등 下級공무원의 신규채용을 금년의 6천5백95명보다 훨씬늘릴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번 정부기구 정비작업으로 各部處에서 減縮되는 고급人力이 國營기업체나 산하단체 任職員으로 轉職되는경우 縮小의미가 없어지므로 이들산하단체와 국영기업체의 任員數를 동결하거나 임원등 상위직의 정비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키로했다。

한편 정부의 조직개편에따라 앞으로 단행될 後續人事에는 4급이상(과장급)의 간부급공무원만 1천5백명선으로 課의 통폐합등으로 발생하는 5급이하공무원까지 합하면 3천명선에이를것으로 보인다。

총무처는 내주까지 각부처의 職制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11월초 發效케하고 이에따라 후속인사를단행、11월중에 모든인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총무처관계자는 16일 『행정空白을 막기위해 될수있는대로 빠른시일내에 후속인사를 마무리짓고 인사이동에따른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당분간 管理職의 部處間인사교류는 하지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 "選擧의식 人氣發言말라"
民正黨、노동당과對決서 이겨야

새民正黨職 任命狀

全斗煥 대통령은 16일 『의원들이 4년후의 선거를 의식하여 개인 연설을 한듯 人氣발언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民正黨간부들에게 강력히 지시한것으로 알려졌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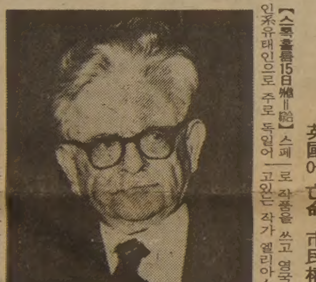
全대통령은 이날 民正黨의 羅碩昊 정책위의장등 신임간부들에게 任命狀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에서는 與野가 같은 국가목표를향해 나가야하며 선거를 의식한 人氣발언을 계속한다면 舊시대의 국회와 다를바없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한참석자가전했다。

全대통령은 새시대의 새國會像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民正黨은 北傀의 勞動黨과 대결하여 이길수있도록 黨員을 교육훈련시켜야한다고 이론 무장을 갖추도록 民正黨의 역할을 강조한것으로 알려졌다。

全대통령은 최근의 低質炭사건에대해 『국민에게 不便을주지않도록 하면서 업자들도 法에따라 처리할것』이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노벨文學賞에 카네티

불가리아胎生유태인 英國에亡命、市民權
化學博士 多面的作家



◇엘리아스·카네티

【스톡홀름15日UPI=聯合】 스페인系유태인으로 주로 독일어로 작품을 쓰고 영국에서 살고있는 작가 엘리아스·카네티(76)가 1981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15일 스웨덴한림원이 발표했다。

1905년 불가리아의 루추크에서 태어난 카네티는 프랑크푸르트、빈、취리히、파리및 런던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영국시민권을 갖고 있는 코스모폴리탄적인 경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화학박사학위도 갖고 있으면서 문학에 전념、소설、희곡、수필、여행기、회고록등 다면적인 활동을해왔다。

스웨덴한림원은 그의 저술이 『시야가 넓고 아이디어와 예술적인 힘이 넘쳐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수상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카네티는 反파시즘적인 문학성향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문학적성격은 빈에 형성되었는데 당시 빈은 몰락해가는 奧洪帝國의수도로 프란츠·카프카나 지그문트·프로이트같은 코스모폴리탄적인 인물들을 배출하기 적합한 분위기였다。

그의 첫출세작이자 대표작은 1935년에 발표한 소설 「眩惑」이것은 1920년대 빈의 한中國語교수와그의집하녀와의 관계를 통해 전체주의를 비판한것으로미국에서는「바벨탑」이라는제목으로 번역돼 나왔다。

이밖에 그의 저서로는 「결혼」(1932년)「허영의 코미디」(1950년)「유의예」(1956년)「군중과 권력」(1960년)등과여행기인「마라케시로부터의 목소리」(1968년)등이있다。

蘇·埃關係개선促求
브、무바라크에祝電

【모스크바15日AP=聯合】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국가원수)은 15일 무바라크 새 이집트 대통령에게보낸 취임축하전문에서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소련은 중동에서의 『포괄적인 평화수립을 추구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機構縮小 後續조치
南總理、早速매듭을

南悳祐국무총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기구개편案이 확정됨에따라 각부처는 내주안으로 職制개정등 後續조치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행정의 空白과 공무원의 동요가 없도록하라』고 지시했다。

南총리는 또 『앞으로 모든 공직자와 주요산하단체、임직원들은 班常會에 빠짐없이 참석해 정부시책을 전달하고 民意를 파악、정확히 반영토록하라』고 말했다。

地平線

『코피가 암을 일으킨다』고 미국의 하버드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것이 지난3월이었다。『코피가 암을 억제한다』고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것은 8월이었다。이어 예일대학팀도 코피가 암을 일으키는 증거는 없다고 연구결과를 밝히고 나섰다。그야말로 「코피전쟁」이 벌어진 꼴이었다。서양사람들이 냉수보다도 더 마시는 코피인만큼 당연한 노릇이다。

▼무엇이 암을 일으키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고 장담할수 없는 실정이다。한때는 유전적 요소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 적도 있었다。바이러스나 환경오염、또는 일종의 직업병으로 생각하는 것은 최근까지도 일반적인 경향이 었다。미국 정부산하의 암연구기관들은 최근까지만해도 암환자의 20~38%가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을 다루는 직업과 관련된다고 봤다。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은 암사망자의 겨우 4%만이 직업과 관련된다고 보고있다。환경오염은 5%이하、의약품이 1%、식품첨가물이 1%로보고있다。이들은 모두가 개인적인 힘으로 어떻게 할수없는 원인들이었다。반대로 과학자들은 대부분 개인적인노력으로 피할수있는 것들이 암의원인이라고 생각하는게 요즈음의일반적인 경향이다。

▼개인적인 노력으로 피할수있는 원인이란 담배나 음식、그리고 소위「생활양식」에서 오는 것들이다。미국의경우 담배는 암사망자의 30%、술이 3%를 차지하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아기를 갖거나 성행위와 관련된 것이 7%다。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영국의 돌박사와피토박사는 35%가 음식과 관련된것으로보고있다。기름·섬유질·비타민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음식에는 암을 억제하는 성분도있다。그러니까 아직은 음식이 어떤 효과를갖고있는지 분명히 밝혀진것은 아니라고 돌박사와 피토박사는 못박고있다。코피도그중의하나임이 분명하다。『코피는좋은가、나쁜가?사실은 아직 아무도모른다는 것이다』-이것은 워싱턴·포스트紙에서 박터·콘이라는 사람이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미국의 식품의약국은 코피가 기형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작년에 공식경고한 일이 있었다。임신한 부인은 코피나 콜라를 줄이라는 권고다。게다가 원두코피를 거르는 종이에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은 한국의 다방족들에게 충격적인 경고가 아닐수없다。『필터를 쓰지 말라』는 당국의 명령은 철저히 지켜져야할 것이다。도시민들이 내집드나들듯하는 다방이 발암물질의 공급원이 돼선 안될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531-0277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생명의 말씀
CITY-TV : 체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체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엠바(EMBA)= 미국에서 산출되는 최고급품의 양식밍크
★마제스틱(MAJESTIC)= 캐나다에서 산출되는 최고급 밍크.
★사가(SAGA)= 최고급 밍크.
★노르카(NORKA)= 소련의 최고급 밍크.
양식밍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사파이어(Sapphire) 상모(上毛)는 블루 그레이. 또는 연은 푸른 빛을 띠고 있으며. 면모(綿毛)는 연은 잿빛.
★바이어릿트(Violet) 상모는 블루 그레이. 또는 연은 제비꽃빛깔. 면모는 하얀 잿빛.
★파스텔(Pastel) 상모는 연은 다색부터 짙은 색까지 있으며. 면모는 상모의 빛깔과 비슷하나 상모보다 엷다.
★데미바프(Demi Buff) 파스텔 빛깔보다 좀더 짙다.

낙엽이 한잎 두잎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쌀쌀한 겨울이 성큼 다가 오기전에
입는 보석, 밍크를…….
올 겨울을 훈훈하게 보내시지
않으시겠읍니까?
●한벌의 밍크코트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급 밍크스킨+COLLAR MATCHING+CUTTING+SEWING입니다.
30년 경험의 기술자들이 위의 것을 모두 완벽하게 처리,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읍니다.
☆오더 메이드 전문
록키모피
315 ADELAIDE ST. W. 2nd Floor, TORONTO
TEL : 366-4497
월~금 : AM10 : 00~PM5 : 00
토 : AM10 : 00~PM2 : 00

美、수단에 非常軍援 1억弗

國防省、議會에 法案제출

F5·탱크등 年內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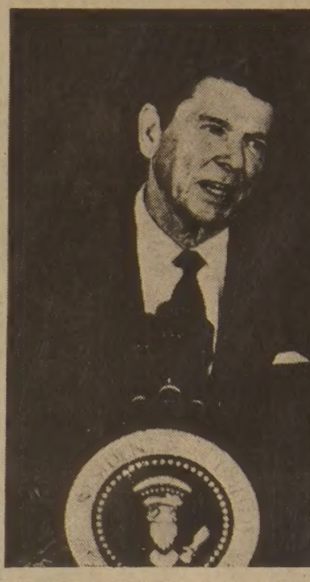
리비아危脅에 對處…兩國 협상중

【워싱턴15日UPI=聯合】 美국방성은 리비아로부터의 군사위협에 직면한 수단의 방위력을 지원하기위해 1억달러규모의 긴급군사원조를 이나라에 제공할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군원관계법안을 의회에 회부、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對의회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美국방성의 한고위관리가 15일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를거부한 이 관리는 이법안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피격사건이 발생한 지난주에 의회에 회부됐다고 밝히고 국방성은 이 비상군원이 금년말이전에 수단에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덧붙였다。

이관리는 또 정부의 對수단비상군원법안에는 F5전투기2대 M60형탱크20대 1백55㎜곡사포12문등이 포함돼있다고 밝히면서 제공품목의 구체적사항을 확정키위한 협상이 美·수단 양국정부간에 진행되고있다고 덧붙였다。

美정부는 수단이 리비아와 그나라가 점령중인 차드공화국 등으로부터 空中및 지상공격위협을 받고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관리는 말했다。



◇로널드·레이건美 대통령이 15일 필라델피아.세계문제협의회에서 개발도상국에대한 美國외政策을 설명하고있다。 【필라델피아15日AP電送=聯合】

對사우디 警報機판매否決권고案

美上院외교委 통과

【워싱턴15日AP=聯合】 美上院外交委員會는 15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의 對사우디아라비아 판매법안을 부결시키도록 上院본회의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9대 8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보다앞서 上院軍事委는 AWACS판매를포함한 對사우디 무기판매법안을 10대5로 지지했다。

上院본회의는 5대의 AWACS를포함한 85억달러 상당의 對사우디 무기판매법안을 10월 마지막주에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AWACS의 對사우디판매법안은 앞서 14일 下院본회의에서 3백1대 1백11표의 커다란표차로 거부된바 있다。

한편 上院共和黨院內총무인 하워드·베이커의원은 外交委의 표결에앞서 기자들에게 레이건 대통령의 對사우디무기판매법안이 上院에서 지지에 필요한 과반수를 얻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몇주일전에 비해 레이건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가고있다』고 밝혔다。

"強國위한 國防力추구"

레이건 自由貿易으로 開途國 지원

【워싱턴16日=聯合】 레이건美대통령은 15일 앞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의 사회·경제발전을 도모하기위해 미국과 세계의 경제를 부양하고 ▲미국을 강력하고 안전한 국가로 만들기위해 적절한 국방력을 갖추어야한다는 두가지의 대원칙아래 수행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필라델피아의 세계문제협의회에서 미국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정책을 밝히는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미국은 또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을위해 앞으로 자유무역체제의 원조보다는 자유무역체제의 정착에 중점을 두게될것이라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관계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미국은 선후진국간의 전략적인 협조를 촉진할 건설적인 정책을 추구할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다음주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되는 南北정상회담과 관련、사회발전을위해 앞으로 직접적인 원조보다는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협력 ▲무역과 투자의 증진 ▲에너지 농업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조 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소련과 공산국가들의 불참을 비난하고 소련이 불참하는주된 이유는 그들이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아무것도 제의할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리비아에 特攻隊派遣고려

수단大統領회견

【카이로16日AP=聯合】 가파르·누메이리 수단 대통령은 수단이 리비아에 特攻隊를 대거 파견할것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누메이리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이집트 日刊 알·아람紙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테러와 살인』을 일삼는 리비아 침략자들이 현재 수단에 은밀히 침투、對차드국경 지역 수단마을들을 폭파하고 정부전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波勞組간부 黨서 추방

"社會主義 위배" 强硬派 숙청요구로

【바르샤바15日路=聯合】 자유노조최고위간부이자 공산당원인 보그단·리스(29)가 폴란드공산당에서 추방됐다고 관영 PAP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폴란드공산당중앙위원회의를 하루앞두고 발표된 그의 추방결정은 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자유노조소속 공산당원들에 대한 공산당내 강경론자들의 숙청요구에 뒤이은 것이다。

PAP통신은 폴란드 공산당 그다니스크지부가 리스의 행위가 당강령과 사회주의노선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도달、그의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자유노조 그다니스크지부 부지부장이자 전국위원인 보그단·리스는 레흐·바웬사와 함께 자유노조의 前身格인 폴란드 노동연맹 창설자의 한사람으로 지난해 10월 발트해연안 항만파업을주도했었다。

波 기본生必品가격 凍結

점증하는 社會不安 해소

【바르샤바15日路=聯合】 폴란드 정부는 식량등 생필품의 공급부족및 가격앙등을 둘러싸고 점증하는 사회불안을 해소하기위해 15일 기본생필품가격을 동결하기로 동의했다고 정부와 협상을 벌인 자유노조대표들이 밝혔다。

자유노조대표들은 기자들에게 정부가 석유및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생필품가격을 정부·노조간의 새가격정책이 합의될때까지 동결해야한다는 노조측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日서 대규모 炭鑛사고발생

鑛夫8명死亡 百여명 갇혀

【삿뽀로(札幌) 16日AP=聯合】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삿뽀로市에서 50㎞떨어진 유바리탄광에서 16일하오 가스분출사고가 발생、광부8명이 숨지고 95명~1백20명의 광부가 갱도에 갇혔다고 경찰당국이 밝혔다。

이날 사고는 지하3천m에 있는 탄광의 갱도에 가스가 분출되면서 일어났다。

美·佛國防相회담

埃·수단西方에중요

【파리15日UPI=聯合】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15일 미국과 프랑스정부가 이집트와 수단이 서방전체에 『중대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日本에 나타난 食人상어 영화 「조스」에 나온 식인상어모형이 지난9월 일본에 나돌아 사람들을 삼키는 장면을 연출하고있다。【東京AP電送=聯合】

海外토픽

北京에 蔣介石사진

★辛亥革命 70周맞아

최근까지도 중공으로부터 반역자로 비난받아온 고蔣介石자유중국총통의 사진이 辛亥革命7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北京의 한전시회에 등장했다고.

최근들어 대만에 대한 평화공세를 강화하고있는 가운데 중공의 국부 孫文의 처인 故宋慶齡의 저택에 전시된 이사진은 지난24년 황포사관학교에서 孫文부부와 함께 기념촬영한것。【北京=共同】

英 폴리스의 앨범 美서 百萬장 팔려

★…보이지않는 태양으로 英멜러디·메이커선정 인기팝 1위로까지치솟았던 영국 3인조 그룹폴리스의인기가 美國에서도열광적이라고.

폴리스의 최근앨범이 美國내에서 그들의 인기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중이라고。78년 첫앨범 「오톨란도스·다무르」를 출반한 이래 인기정상을 치닫고있는 폴리스는 레코드社와 계약하면서 팔리지 않으면 돈을 받지않겠다고 기염。

메아리

전라도땅 구례쪽에서 맑은 한줄기、또한 경상도쪽 花開峽에서 흘러내리는 다른 냇물줄기、이둘이 합쳐서 영호남의 경계를 가르며 조용히 흐르는 강이 섬진강이다。

金東里씨의 가작 「驛馬」는 이렇게 두 지방의 만남을 묘사하면서 兩道 사람들의 훈훈한 인심을 그림처럼 펼친다。작품의 무대인 「화개장터」엔 장날이 오면 지리산 화전민의 더덕、도라지、고사리같은 입맛 돋우는 산물이 구례길에서 내려오고 경상도 하동길에선 섬진강하류의 해산물이 올라온다。

작품에서 物物의 교류보다 더 아름답게 묘사된것이 서로 다른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의 따뜻한 만남과 애상이 어린 이별이다。로렐리즘이 강한 이소설이 감동을 더하는것은 바로 「인간의만남」때문이라고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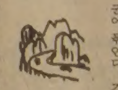
논리(logic)의 어원인 로고스(logos)는 길이란 뜻을 지닌 단어다。인간의 마음들은 길과 두뇌를 통해 오가며 만나게된다。영호남의 마을을 하나로 이어줄 「和合의 大路」가 어제 착공되었다。지리산을 타고내리는 동서고속도로를 뚫기 시작한것이다。

마음의 길

두지방을 연결하는 「로고스의 다리」가 놓여지는것이라고 믿는다。전장 1백75㎞에 2천2백60여억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大役事다。84년 가을에 완공되면 그 파급효과는 놀라울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리적인 불리때문에 가려졌던 관광자원이 기지개를켜며 빛을 발할것으로 예상된다。국립공원인 지리、가야、덕유산등이 이 고속도로권에 묶인다。가야문화도 새롭게 조명될것이 확실하다。

겨우 명맥이나 이어오는 토산품이 다시 활기를 찾을수 있지 않을까…。합천의 왕골돗자리、곶감、약초、거창의 사과、함양의 토종꿀、순창의 고추、담양의 죽세가공품이 기대에 부풀었다。



낙후된 奧地도 전국1일생활권을 실감하게 된다。서울과 부산에 집중된 산업지도 동서직거래로 그 판도를 달리 하리라는 희망도 커졌다。

기대가 클수록 공사에 당부하고 싶은 일도 많다。무엇보다 『千古의 자연』을 함부로 변형시키지 말아 달라는것이다。동서고속도로는 편리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길로 탄생시켜야 하겠다。그래야 따뜻한 인정이 이길을 달릴수 있기때문이다。

인간의 육체는 권력으로 꽉 덮여있다

노벨文學賞 엘리아스·카네티의 文學세계

◇1963년「타임」誌에 소개된「군중과 권력」 1963년 2월15일자 타임誌 書評欄에 「군중과 권력」이 소개됐을때。저자 사진과 함께 나폴레옹軍의 모스크바 패퇴장면을 실었다。

금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엘리아스·카네티는 섬세의 유태계 극작가、소설가、수필가이다。현재 런던에 살고있는 그는 독일어와 영어로 작품을 쓰고있으며 평론가들에의해 프란츠·카프카와 비교되어 왔다。

그는 1905년 불가리아의 루추크에서 스페인系유태인을 부모로 태어났다。어렸을때부터 유럽 각지를 여행、여러나라말을 익힐 기회를가졌다。그의 작품이 근본적으로 反나치즘、反권력적인 것은 이때의 영향과 빈의 코스모폴리탄적인 분위기 탓으로 볼수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취리히、빈에서 공부했는데、특히 빈에서는 사회학을 연구、자기 작품의 바탕을 마련했다。24~29년까지 빈대학에서 군중심리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그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소설형식으로 발표하곤했다。이때 오스트리아의 극작가 카를·크라우스、헤르만·브루흐는 그에게 큰영향을주었다。

소설「眩惑」、외롭게반항하는 인간의 고통그려

군중심리학 집중연구… 모든작품의 바탕이뤄

그가 32년에 발표한 희곡 「결혼」은 65년 독일에 공연됐는데 그로테스크할정도로 현실을 과장했다는 평을 받았다。소설은 35년에 내놓은「眩惑」을 첫작품으로 꼽을수 있다。

그는 38년 나치스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자 영국으로 이주한후 지금까지 계속 영국과 독일에서 작품활동을하고 있다。영국으로 이주한후에도 그의 작품은 그당시 모든유태인이 당했던 불우한시대적상황으로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대기만성이라고 일컬을수 있는 그의작품은 50년대를넘어서면서부터 서서히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특히 72년 40년전에 발표한 3부작 「眩惑」이 독일문학 아카데미에서 뷔히너賞을 수상함으로써 평명을 확고히했다。

「眩惑」은 조이스의 「율리시즈」와 더블린의 「알렉산더광장」등과 비교되는 대작으로 평가되고 있다。현실과 대결하는 투철한 정신、그리고 세계속에서 외롭게 반항하는 인간의 고통과 보람을 은유적으로 다룬 비극적 코미디다。

이 소설은 35년 처음 출판됐을때는 문단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었다。63년 재편성됨으로써 평단의 인정을 받아 독일현대문학의 고전이 됐다。

그가 60년에 내놓은 심리학저서인 「군중과 권력」은 그의 모든작품에 영향을 미친 해설서라고 할수있다。이 책의 내용과 맥락이 닿는 작품으로는 50년에 발표한「허영의 코미디」와 56년의 「猶豫」를 들수 있다。

「허영의 코미디」는 여론이 법률에 작용해서 일으키는 집단히스테리를 그리고있다。「猶豫」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여러가지가 있음을 다루고있다。

그의 작중인물들의 성격과 설정은 군중심리를 다룬 「군중과 권력」에 모두 바탕을 두고있다。작가는 이같은 주인공을 『결작적인 인물』이라 부르고있다。

韓相哲교수(獨文學)는 그의 드라마는 군중의 움직임과 함께 외로운 각개인의 자기자신에 대한 관심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한다。5백년전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태족이라는 그의 출생배경은 작품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불합리한 면을지니게되는 원인이 된것으로 평가된다。

스웨덴 한림원도 『그가 금세기에 독일어로 쓰여진 명쾌한 문체로 작품을 쓰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의 희곡은 모두가 [illegible]』고 평가했다。

[illegible]교수는 『대중성이 없는 작가』로 기억하면서 『그의 작품세계를 강조한 점에서 보아 [illegible]』고 말한다。

카네티의 저서를 독점출판하고있는 뮌헨의 한저社는 지금까지 카네티의 작품17종을 출판、페이퍼백과 하드백의 독일어판 약50만권을 팔았으나 가장 많이 나간것은 「구제받은혀」라고 말했다。【文化部】

「군중과 권력」(대표적著書)

지난60년출간된 카네티의 대표작 「군중과 권력(Masse und Macht)」은 소설이나 희곡이 아닌 일종의 사회심리학적인 저서。

카네티는 인간의 行態와 本性을 파헤친 이저서에서 『인간은 권력에 굶주린 미치광이며 그것도 군중속에서나 이를 추구하는것이지 그이상 아니다』고 결론짓고 있다。

카네티의 인간本性과 行態에 대한 추구는 슈펭글러나 토인비처럼 인류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인간의 육체는 권력으로 꽉 덮여있다』는것。또 그는 『인간은 한손으로는 먹을것을 찾고 다른손으로는 敵을 방어하는 [illegible] 아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한술더떠서 그의 약탈품을 얻기위해 간교하고 피에 굶주려있으며 투쟁적인 족속이라는 주장이다。또한 인간은 자신을 방어하는데 적극적이기보다는 敵을 공격하는데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인간의 무기는 공격용의 무기가 방어용의 무기에 비해 더욱 더발달해왔다는 것이다。

"人類최대의敵은 자신의咀呪로 인한 破滅"

"역사상偉人의 궁극目標는 他人살해"비난

카네티는 군중과 권력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군중은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이것은 그 성격상 모든것을 포용하고 있는 바다나 또는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밭、밀림과 같은것이다。이군중속에 합류하는것은 고독감에서 벗어나기위해、또는 생활의 제약속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다。이때 군중은 평등감과 동료의식을 갖게되는데 [illegible] 인간들은 어디서나 자유스러움을 느낄수 없는데 이때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오히려 속박과 부담감、피로움을 느끼게된다』

카네티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지도자를 필요로하게되는데 [illegible]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은 [illegible] 그들의 희생된 사람들의 [illegible]고 주장한다。

「허영의코미디」(3부작희곡)

[illegible]

"모든건 순수하고 진실…최상의에고 탄생"

[illegible]

「流浪劇團」같은 카네티생애

英·佛·獨·스페인등수없이 떠돌아다녀

祖父도 17國語구사…29년 化學博士로

【스톡홀름·취리히=聯合】 노벨문학상을받은 엘리아스·카네티의 76년에 걸친 인생은 流浪劇團으로 비유될 정도로 다난한것이었다。

카네티의 선조는 원래 스페인의 [illegible] 카네티(Canete)라는 스페인·포르투갈系 유태인。1492년 스페인에서 추방된 카네티의선조는 터키로쫓겨가 수백년을 살다가 루마니아를거쳐 불가리아로 건너갔다。

따라서 카네티의 할아버지는 17개국어를 말할수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1911년 카네티는 그의나이 6세때 아버지를따라 영국으로갔다。그러나 1913년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죽자 카네티가족들은 빈으로 떠났다。

1916년에서 부터 24년 사이 카네티는 취리히와프랑크푸르트에서 수학했으며 빈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했다。그는 29년 빈에서 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38년 프랑스로 갔다가 몇년후부터 비로소 런던에 安住했다。

'소란에서 保護받고싶다'

카네티翁 노벨文學賞수상소감

【프랑크푸르트15日AP=聯合】 81년도 노벨문학상수상자 엘리아스·카네티옹은 대중앞에 나서기를 수줍어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수상이발표된 15일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채『뒤따를 소란으로부터 보호받고 싶다』는 소감만을 출판사를통해피력했다。

카네티옹은 이날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된후 프랑크푸르트와 런던의 출판사 대변인을 통해 그같이 수상소감을 전했는데 [illegible] 취리히에 거주하고있는딸 헤라여사의 소재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저 출판사 대변인은 카네티옹이 떠들썩한 갈채를 피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스톡홀름에서 열릴 시상식에는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런던의 출판사대변인은 카네티옹이 와병중이며 한상 속세를 떠나 살기를 바라면서도 예리한 눈으로 사회를 관찰했었다면서 그의 소감을 전달했다。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구 HIT도매상)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 Cash & Carry에 한함

* Schneider Bacon	500g	2.09
* Schneider cooked Ham		1.79
* Mini-sizzler		1.99
* Weiner	1 lb.	1.85
* Gift- chocolate box (Lowney)		
- Pot of gold		4.29
- All nut		5.19
- Marashino cherries		4.29
- Half & Half		4.29
- Ovation- mint stick		1.85
- Selection cho.		2.55
- Almondillos		2.45

Cash & Carry고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달걀, 양파, 감자를 준비했읍니다.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 K. 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ONTO M8Z 5H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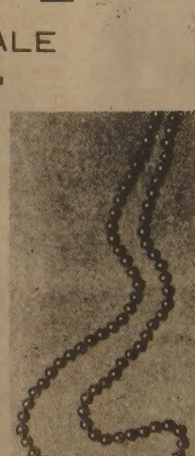
HWY 401 / Q·E·W· / EVANS / HWY 427 / RANGE MORE RD / TORLAKE CR

카나다보석협회 회원

KORYO

확장 이전 1주년 기념 SALE

20 % OFF



고려보석

EATON CENTRE (Level 1 분수대옆)

979-3196

한국일보 특집판

財閥의 實像·虛像…「對外秘의 80년도 身上明細」

한국 50大財閥을 벗긴다 ①

한국財閥의 身上明細書가 밝혀졌다。지금까지 정부의 企業公開정책에따라일부기업의 경영내용은 공개되었으나재벌그룹의 계열기업을 망라한 總合경영지표는 언제나 베일에 가려진채특급 對外秘로 취급되어왔었다。한국일보社는 장막속에묻혀있는 신비를 찾아내기위해 담당취재진을 총동원, 관련자료를 추적, 취재·분석·정리한끝에우리나라50대재벌의 신상기록카드를작성했다。

본사가 現代·三星·럭키·大宇·鮮京등 국내 50대財閥의 계열기업 5백34개업체의 공표재무제표 (貸借對照表)를 수집, 會計法人에 의뢰하여 3개월에 걸쳐 집계, 분석한 「80년도50大財閥 經營分析」결과에 의하면재벌계열기업은 인플레景氣에 편승해서 賣出額은 크게 신장세를 보였으나수익 (순익)이 대폭 줄어들고 負債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이에따라 經營상태전반이 크게 악화되었다。

80년도 결산실적에따르면 50대재벌 5백34개계열기업의 총매출액은 28조5천26억원으로 80년도 우리경제의 국민총생산 (GNP) 35조3백억원에육박하는 수준이다。財閥계열기업의매출액은 이른바 2중계산이 포함되어있어 GNP개념과는 다르지만 재벌의 경제력이 GNP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만큼 비대해졌음을 부인할수없게된것。

財閥그룹별 賣出額순위를보면 現代그룹이 3조2천6백21억원으로 70년대중반이래 재계랭킹1위를고수하고 있고 이어럭키그룹 (湖南精油포함) 2조9천7백9억원, 三星그룹 2조9천50억원, 鮮京그룹 2조6천6백92억원 (油公포함)등이 바짝 뒤를 쫓고있다。2조원그룹 4대재벌에이어 大宇그룹이 1조6천1백32억원, 雙龍그룹 1조3천2백26억원, 曉星그룹 1조1천9백17억원등이 후속주자로 달리고있는데 이들 7개그룹은 매출액이 15억달러를 넘는 세계적인 빅·비즈니스로 부상했다。이밖에도 50대재벌에 포함된 계열기업군의 연간매출액은예외적인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두1천억원대를 넘는다。

財閥그룹의 규모를 가늠하는 總資產은 現代가 2조9천8백40억원으로 역시 최대재벌의 면모를 과시했으며 다음은三星 2조1천20억원, 大宇1조7천7백억원, 럭키 1조7천3백96억원, 鮮京1조5천12억원, 曉星1조5백15억원, 韓進 1조3백75억원등 7개그룹이 자산규모면에서 1조원을 넘어섰고 나머지도 대개 1천억원이넘는 대자산가로 모습을 드러냈다。50대그룹의 자산합계는 24조1천6백77억원。정확한 國富통계가 없어 국민경제상의 비중을 수치로 표시할수는 없지만 엄청난 자산규모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財閥들은 동시에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있어 「負債도 資産」이라는 복식부기원리와 함께 「빚더미위에 세워진 富의 城」이란는 통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50대재벌의 부채총액은 무려 20조4천6백6억원。

財閥의 진짜실력을 나타내는 自己資本 (총자산—총부채)은 現代가 6천3백99억원, 大宇3천5백69억원, 三星2천8백19억원, 럭키 2천6백55억원의 순으로 되어있으며 이밖에 雙龍, 曉星, 大林産業, 東亞건설, 롯데, 斗山그룹등이 1천억원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S企業룹 (41억원), S그룹 (67억원), D그룹 (1백14억원), J그룹등은 기업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로 나타난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플레景氣를 탄 外形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재무구조가 나빠진것은 지난 한햇동안의 심각한 불황때문에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된때문。50대그룹중 무려24개가 그룹전체수지상 赤字를 냈다。

80년중 가장많은 이익을낸 그룹은現代의 4백18억원。大宇·럭키·大林·東亞건설·漢陽주택·三煥企業·斗山·國際商社등 9개그룹이 1백억원이상의순익을 올렸다。이에대해 三星·鮮京·롯데·韓進·韓國生糸·雙龍·韓國火藥·코오롱·泰光·三都物産·大農등은 모두 많은 赤字를 냈다。三星은 重工業·造船·石油化學등 3대중화학관련기업에서, 鮮京은 油公, 韓進은 大韓航空의 과다한 적자때문에 그룹전체의 수지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이처럼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자본구성이 나빠져 50대재벌그룹의평균자기자본비율은 14·94%(가중평균15·5%)로 뚝떨어졌다。이는 정부가 제시한 표준비율 30%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국제비교를 해보아도 美國의 53·05%(제조업평균)서독의 32·0%는 말할것도 없고 日本의 18·3%보다도 낮다。다만 永豊(42·94%), 東洋化學(33·98%), 海成産業(35·2%)등 黃海·開城계통의 3개그룹이 30%를 웃도는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추고있다。

80년중 기업경영이 어려웠던것은 자본회전율, 유동비율, 매출이익률등에서도 잘나타나 있다。50대재벌의 총자본회전율은 대개 1회전 내외로 우리나라 기업의 표준으로보면 자본장비율이 높은 일부 중화학부문의 자본회전율과 비슷하며 외국수준보다도 낮다。이때문에 모두들 자금난에 시달리고있다。

아밖에도 유동비율이 1백%미만으로 언제부도가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있는 그룹이 24개나되고 그대신 고정비율및 고정장기적합률은 표준비율 (1백%이하)을 훨씬 상회하여 부동산투자에 과다한자금을 투자하지않았나하는 의증을 굳혀주었다。또 매출액순이익률은 0·65%밖에 되지않았다。

이번에 분석한 조사자료는 기업별公表대차대조표에 근거를 둔것이다。그룹계열기업을 통합한 연결대차대조표를 근거로하면 재무구조는 훨씬 나빠질것이 틀림없다。전문가들은 연결대차대조표에 의거한 자기자본비율은 10%미만일것으로 보고있다。또 자산재평가가 감안되지 않은 경우가있고 공표된 자료의 진실성、통일성 등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않다。50大財閥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데는 三逸會計法人 (대표 徐泰植)의 협조를 받았다。

取材팀
經濟部
金永烈部長
朴仁淳次長
朴炳潤次長
金曜雄기자
崔相泰기자
金基昊기자
趙源永기자
朴 武기자
朴昊銀기자
林鍾乾기자
寫眞部 韓 隆기자

<소개함> 서울본사 경제특집「한국50대재벌을 벗긴다」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제1부「총론—총매출·총자산·부채등」
제2부「80년도 경영분석 세부내용」
제3부「한국 재벌그룹의 성장과정」

본사經濟部、5百34개系列업체 財務諸表 3個月에걸쳐 分析

總賣出 28兆넘어…GNP34兆 육박
不況으로 純益줄어 24개그룹 赤字
總資產 24兆에 負債가 20兆4千億

平均 自己資本은 겨우14·94%

總賣出順	現代·럭키·三星·鮮京·大宇
純 益	現代·大宇·럭키·大林·東亞
總資產	現代·三星·大宇·럭키·鮮京
自己資本	現代·大宇·三星·럭키·雙龍

外形만은 世界的인 랭킹으로

資料의 統一性·眞實性 문제있으나 現經濟·企業與件上 최선다해

財務構造 분석을 마치고

會計處理방식달라 單純비교엔 難點도
系列기업개념 專門性보다 外觀을기준

徐泰植
<三逸會計法人 代表公認會計士>

三逸會計法人은 한국일보社의 요청에따라 該社가 수집한 우리나라 50대그룹의 재무자료를 종합, 정리분석했다。한국일보가 시도한 連結재무자료의 작성은 우리나라기업사상 처음있는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그러나 이같은 작업은 매우 방대한 과업일뿐아니라 각기업이 제시한 자료의 통일성, 진실성등에 다소 문제가 있기때문에 연결 재무자료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감안해야할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모든자료는 기업에서 제시된 決算資料를 중심으로 작성된것으로서 會計監査를 畢한 숫자가 아니다。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當期純利益의 경우 감사수정후의 숫자와 차이를 나타낼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本作業에서는 제시된 財務資料를 같은 성격의 항목을 중심으로 單純 集計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그룹社간의 거래에 따른 內部利益이 제거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룹內의 A社가 B社에 賣出한 제품이 그룹밖의 제3자에게 판매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룹社끼리 有價證券이나 不動產을 原價이상으로 賣買한 경우에도 架空의 이익이 계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째, 상호비교를 위해서는 적어도 같은 그룹社들 간에는 같은 會計原則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만든 財務資料를 기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자료에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예를들면 A그룹은 固定資產의減價償却은 定率法으로 계산하고 在庫資產의 評價方法은 後入先出法을 선택하고 開發費등의 비용은 모두 當期에 비용으로 처리하는등 보수적인 會計處理方法을 채택하고、B그룹은 각각 定額法、先入先出法과 特定費用을 移延하는등 當期의 利益을 많이 보일수있는 會計處理 방법을 선택하여 결산을 하였을경우 양자간의 單純比較는 그리 대단한 의미를 가질수없다고 하겠다。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會計를 통한 그룹의 中央統制機能을 거의 행사하고 있지않는 관계상 同一그룹內 각社의 會計政策도 각기 다른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룹 또는 그룹간의 비교를하여야할 것이다。

네째, 通稱 그룹이라고 하고 財閥企業群이라고도 하나 相互比較性을 살리기 위해서는 所有權 또는 經營支配權등을 중심으로 볼때 해당되는 企業만을 포함시켜야할 것이나 그러한 點의 고려없이 非專門的인 기준에서、즉 外部에서보는 기준으로 선정 集計되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실제로는 同一株主의 所有權에 의한 支配나 同一 經營層의 경영에대한 지배、統制를 받지않는 경우에도 外觀만으로 特定그룹의 자료에 포함된 일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일정한 기준을 定立할 경우、各그룹의 順位나 數字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각 財閥企業群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숫자 이외에도 여러가지 財務情報가 필요하나 표시되지 않았다。

예를들면회계정책、담보현황、附保현황、再評價현황、偶發債務、約定사항、法的제약등 여러가지의 숫자로 표시할수없는 정보들이 財務資料의 이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경우가 많으나 本資料의 特性上 公示가 불가능하였다。

여섯째、우리나라 그룹의 所有支配方式의 特性上 결과로 나온 수치는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점이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그룹의 持株管理를 담당하는 母會社를 중심으로 子會社나 關係會社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連結財務諸表를만드는 경우에도 母會社란 法的 實體의 連結財務諸表(過半數 이상의 株式을 소유하는子會社는 連結、20%이상소유하는 關係會社의 경우는 持分法을 사용하여 母會社持分의 잉여분과 當期순이익만을 연결함)를 작성할수 있음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룹의 持株形態는 보다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數個의 主力企業의 相互持株와 大株主1人 또는大株主 그룹의 持分所有를 통하여 전체 그룹에 대한 經營權을 행사、운영하는 것이 通常의 형태로서 몇몇 그룹을 제외하고는 외국에서 볼수있는 持株會社 또는 母外社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本資料에 제시된 숫자들은 어느 特定그룹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하는 점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통상 그룹의 連結資料에 대해서는 단순히 관련기업의 財務數字를 단순 集計한후 그 外樣을 보고 분석 평가하기 쉬우나 위에서 언급한바와같이 여러가지 기술적 어려움과 제약조건이 내포되어 있는것으로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한후 이용하여야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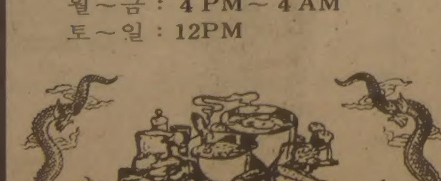
몇몇 先發그룹들은 1980년대 中半을 향한 국제진출과 國際的金融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룹 連結財務諸表는 資本 所有의 형태라든가 經營支配 방식이 외국의 그것과는 독특한 樣相을 띠고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국제적인 信認度의 提高를 위해서 또한 소속된 그룹 전체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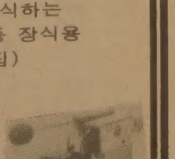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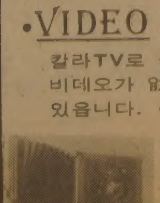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국일보社가 작성한 종합재무제표는 오늘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보면 최선을 다한것이라 할수있겠다。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이와 유사한 試圖도 없었다。그런 의미에서 한국일보社가 초보적인 방법이기는하나 각그룹의 자료종합과 정리를 시도하게 된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국제무대에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진출과 국제금융업계에서의 인식제고가 보다 가까운 시일안에 실현되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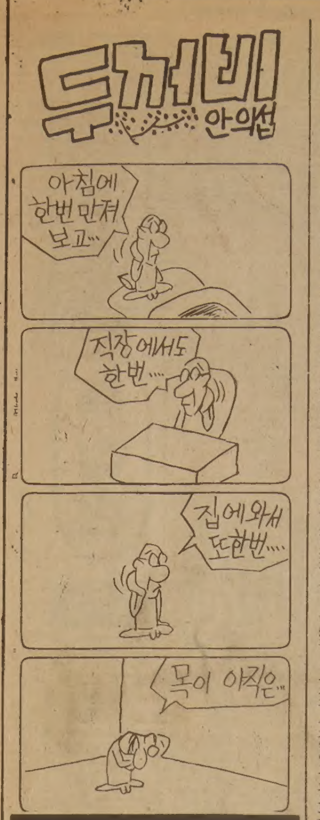
주간여성
인기절찬 판매중!
10월18일자
주간女性
女大生과 군인이 불우少年 갈르치기 18년
—퀀세트 막사에 꽃핀 봉사와 向學의 美談
老處女 스타들의 결혼 作戰
鄭惠英 숭려詩人의「꽃과 詩」
母乳 育兒해 主役 뺏긴 女優
컬러 特集 81·82 패션
韓良順교수의「88서울五輪」
건축가 金敬煥씨「梨大30년」
美容 연구가 6명 異色선언

<탤런트 丁允姬>
다이애너妃가 결혼 2개월만에 며느리 설움
放送局서 史上 初有의 과부·홀아비 콘테스트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한발식품포함)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새 리스팅
도넛샵 :
①주매상 $3500. 6개월된 전망 밝은지역
렌트 : $3000, 10년+10년 옵션, $90000다운
가격 : $180,000
②월순수익 $9000보장, 운영이·간단하고 시간짧음
렌트 : $1,060, 8년+10년옵션, $140,000다운
가격 : $185,000
커피샵
①5일간 영업, 7시부터 5시반까지 오픈,
주매상 : $2,500, 렌트 : $1,225, 3년+3년옵션
가격 : $75,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①주매상 : $5,500, 렌트 : $750, 5년+3년
가격 : $50,000
②주매상 : $6,700, 새로꾸민 전망 밝은가게
넓은 방갈로
(던다스와 Hwy427)교통이 편리하고 벽돌로 된 단층집, 3 베드룸, 파이어 플레이스 2개, 65×170, 뒷 마당크고 잘 단장된 큰 지하실 $65,000다운, 17% 2년간 몰개지 잡아줌.
가격 : $164,900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사 진
• commercial photography
기업의 성공은 적절한 광고로부터!
백마디 말보다 한장의 사진을!
(무료상담, 당분간 특별할인)
• home, office wall decors
쓸쓸한 벽을 아늑하게 장식하는
대소형 액자및 MURAL등 장식용
작품사진(위탁판매점 모집)
• wedding coverage
특수 효과를 살린 창의력
넘치는 사진들 캐나다
최대의 전문 LAB에
현상의뢰

color camera
• VIDEO service
칼라TV로 볼 수 있는 비데오 촬영!
비데오가 없으신 분도 빌려 볼 수
있읍니다. (단체행사및 결혼, 회갑, 돌등 가족행사)
(구 David's Photography)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5백45坪이하 소규모建物 신축 消防署 동의없이 許可

國務會議 消防令완화 議決

내무부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방재(防災)에만치중,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중한 소방시설 부담을주거나 과도한 규제를해왔던 소방법 시행령을 전면개정, 소방시설의 일부를폐지또는 소방시설 의무규정을 크게완화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령에따르면 실내소화전(消火栓)은 4백50평~9백평이하의 건물에대해, 또자동화재탐지설비는 1백80평~6백평이하의 건물에대해 각각 설치않아도 되도록면제했고 국민들에게 부담만줘왔던 불필요한 비상경보기 및 화재속보설비등은 폐지했다.

또 아파트 시장 백화점 공장 학교 지하가(街) 하숙등의 카피트와 커튼등에 대해서는 방염(防炎)처리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주택과 3층이하의 공동주택등 일반건축물은 물론 특수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1백82평~5백45평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소방법상 동의없이도 허가해주도록했다.

이 개정령은 이밖에도 수용인원이 50명이상의 다방 음식점 여관등에 법정자격자를 채용,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돼있는 현재규정을완화, 수용인원 50인이상 또는 근무자수 50인이상으로 적용기준을 높였다.

애인亂刺 호텔서投身

20代간호원 結婚반대비관…둘다 重態

15일 하오8시50분께 서울城東區廣壯洞 워커힐 쉐라톤 호텔 8층816호실에서 朴長順양(24·전북完州郡參禮邑參禮里1117의5)이 申宇植씨(27·상공부외국인투자담당관실계장)의 아랫배를 칼로 찔러 중태에 빠뜨리고 자신은 수술용 메스로 양손목의 동맥을 끊고 창문을 통해 18m아래 3층베란다로 뛰어내려 두사람 모두 중태에 빠졌다.

이들은 지난 14일하오1시30분께 함께 이호텔에 투숙, 바깥 출입을 않은채 호텔방에 머물러 왔는데 申씨가 이날밤 8시50분께 전화교환양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의사좀 불러달라. 사람이 다죽어가고있다』고 말해 지배인 金輝東씨(36)가 급히 816호실로 달려갔는것. 朴양은 문을열었는데 양손목에서 피를 흘리며『저사람을살려달라』고 말하며 넋을잃고서있었다는것. 申씨는 아랫배를 움켜쥔채 …

趙治勳、타이틀防禦

名人位 도전棋 가또에 4連勝

【東京=宋孝彬특파원】 趙治勳名人은「타이틀방어에 약하다」는 징크스를 깨고 타이틀을 방어에 처음으로 성공, 名人位를 지켰다.

趙名人은 지난14~15일 양일간 훗카이도(北海道) 삿뽀로(札幌)市에서 열린 제6기 名人戰 도전7번기 제4국에서 도전자 가또·마사오9단(加藤正夫)을 2백39수만에 2집반차로이겨 4연승을 거두어 名人位방어에 성공했다.

이번 제4국은 執黑의 趙名人이 白을든 가또9단을맞아 先番의 利를 살려 白의 추격을 뿌리친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매켄로 準決진출

濠실내테니스

【시드니15日AP=聯】 월드 챔피언 美國의 존·매켄로(22)는 15일 시드니에서 벌어진 濠洲실내테니스선수권대회준준결승에서 같은 美國의 …를 6-0, 6-1로 가볍게 물리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前대회우승자인 매켄로는 이날 경기에서 거의 에러가 없는 완벽한 플레이를 보였으며 힘을 바탕으로한 위력적인 공격을 퍼부어 불과 49분만에 경기를 끝냈다.

매켄로는 17일 준결승에서 엘리어트·텔처와 비타스·게룰라이티스간의 승자와 대결한다.

이번 대회에는 17만5천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다.

官選理事 文敎部、啓明大에 12명파견

文敎部는 16일 啓明大이사진 15명중 12명의 해임을 승인하고 大邱市교육장 金容大씨등 12명의 관선이사를 선임했다.

啓明大는 지난해10월 東山기독병원과 재단을 통합하면서 같은 예수교장로회총회계속 두파끼리 주도권다툼을 벌이다 법인기능이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에 관선이사를 파견하게된것이라고 문교부가 밝혔다.

美프로 활약중인 朴哲淳투수 歸國

美프로야구 마이너·리그인 텍사스·리그소속팀 엘파소·디아블로스에서 활약한 朴哲淳투수가 81년시즌을 마치고 휴가차 귀국했다.

전국 21개大學에 이념批判 교육센터

문교부는 15일 대학생들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강화키위해 내년에 서울대 慶北大 全南大 外國語大 梨花여대 延世大등 21개대학에 「이데올로기비판교육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다른사람시켜 돈찾아라" 시킨 第3의인물 趙仁宰에 捜査집중

高여인·第3의人物 관련여부에 촛점

◇피살된 尹노파

마치 미스터리 연속추리극을 보는듯한 느낌이다. 10억대의 재산가로 알려졌던 尹景花씨(72)가 불의의 참변을 당했을때 경찰은 尹씨가 2억여원의 예금을 해놓았을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20여개 통장으로 나누어 예치시켜왔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돈에 관한한 비밀주의였던 尹씨가 이미 사망해버린만큼 그추정의 근거는 추리의 한계를 크게 넘지 못했다. 경찰은 그 「추정」 속에서 3개은행에 분산예치된 9천여만원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尹씨가 비장해 놓았던 돈의 액수는 과연 얼마나될까. 첫번째 미스터리가 나온다.

경찰은 尹씨살해범으로 조카 며느리 高淑鍾씨(46)를 구속 송치했지만 高씨로부터 돈의 행방과 관련된 증거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 재산에 관련된범죄라면 통장과 인장을 몇개쯤 빼돌렸거나 은행돈을 얼마만큼인출 …

미묘한상황서 다시 미스터리

관련있을땐 公訴유지 결정적物證 아니면 眞犯은 따로、사건은 急轉

해설

… 공교로운 분위기속에서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高淑鍾씨는 극구 범행을부인하고 있고 경찰은 朴尙熙양 피살사건까지겹쳐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싯점인 것이다.

… 나는셈이 된다. 그러나 그 「정조직」이 高씨와 전혀관계가없는「제3의 사나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무척 심각해진다. 尹씨를 살해하고 예금통장을 훔쳐간자가 高씨가아니고 …

현재의 경찰조사로는 陸씨는 이통장을 친구 李泰鉉씨(51)에게서 받았고 李씨는 또평소 안면이있는 趙仁宰씨(50)에게서 받았다는 사실만확인했다.

… 趙씨가 사건의 열쇠를 쥐고있는 인물일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사실이다. 어쨌든 범인으로 기소된 高淑鍾여인이 첫공판부터 강요된 자백임을 주장, 자신의혐의사실을 부인하고있는만큼 경찰은 배수의 진을친채 이사건과 정면대결을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

【裵琪哲 기자】

被殺尹갑부 통장갖고 적금찾으려던 두남자檢擧

趙씨는「電氣업자」심부름꾼

예금증서 出處가 사건열쇠

서울龍山區 曉元路 尹景花씨(72)피살사건이 또한차례 힘든 고비를 맞았다. 사건을전후해서 없어졌던것으로 추정되는 尹씨의 예금증서중 일부가 사건발생 80여일만에 느닷없이 나타난것이다. 「예금증서」의 이같은 출현은 지금 살해범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尹씨의 조카 高淑鍾씨(46)가『경찰의 고문으로 허위자백했다』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있는 싯점인만큼 高씨와 관련점이 확인되는 경우 결정적인 물증을확보하는 셈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사건자체가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경은 이사건수사를 직접 맡기로 하고 상하 수사력을 동원, 「예금증서」가 나온 출처에 대한 전력수사에 들어갔다.

◇기지와 침착으로 陸씨를 검거토록도운 은행원 林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정기예금증서발견

尹景花씨명의 정기예금증서가 발견된 것은 지난 14일 하오3시20분 제일은행 退溪路지점에서였다.

이날 액면5백50만원짜리 정기예금증서 3장을 들고 인감변경신고를하러왔던 사람은 陸秉龍씨(62·무직·서울 西大門區弘濟4洞13의50)로 제(諸) 예금담당계원 林相赫씨(21)에게『도장을 잃어버려 명의를 이영숙으로 변경해야겠다』며 이영숙 이라는 가명으로된 1백50만원짜리 예금증서 1장과 김종유, 박영희앞으로된 2백만원짜리 예금증서 2장을 제출했다.

원장을 뒤져본 林씨는 예금증서가 尹씨의 것임을 확인, 『분실된 증서이니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陸씨를 붙잡아 둔뒤 이사실을상사에게 보고했고 은행측은 즉각이를 龍山경찰서에 신고했다.

수사

陸씨는 경찰에서『잘 아는사이인 李泰鉉씨(51·건설하청업·서울麻浦區孔德洞38의159)로부터 지난 13일하오 채무채권관계로 받은것』이라고 주장, 『이것이 尹보살의 예금증서인줄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陸씨의 진술에따라 李泰鉉씨를 불러 조사를폈는데 李씨도『지난13일상오 평소 공사하청관계로 안면이있는 趙仁宰씨(50)로부터 다른사람을 시켜 돈을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있는데 지난14일이후 趙씨는 행방을 감추고있다.

한편 尹景花씨는 지난해11월 제일은행 退溪路지점에 신규로 정기예금을 개설, 지난 7월10일 3개의 정기예금에 5백50만원을 입금하기까지 …

◇李泰鉉씨

◇陸秉龍씨

… 거래를 계속해왔는데 담당계원에 의하면 尹씨는 입금할때나 찾을때나 자신이 직접 찾아왔으며 드러난 3개의정기예금 증서는 尹씨의 거래통장중 일부였다.

한편 陸씨가 갖고온 예금증서는 尹씨가 살해되기 12일전인 지난7월10일 인감은 尹씨자신의 것으로하고 예금주이름은 조카손녀 朴英姬씨(33)이름으로 1백50만원을, 밝혀지지않은 2개의 가명으로 각2백만원씩 모두 5백50만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입금, 18일 발행한 것이었다.

사건발생당시 경찰은 20개의 통장에 2억여원이 예금된것으로 추정했었으나 이를모두확인하지는못했었다.

경찰은 문제의 예금증서가 尹씨가 살해되기 직전인 지난7월18일에 발행된 것임을 중시, 이것이 사건전에 尹씨가 유출한 것인지 피살사건의 현장피해품인지의 여부를 가려내려고 하고있다.

한편 陸씨는 大邱에서 극장업을하다 실패, 12년전에 상경, 소규모 부동산업을 하며 弘濟洞13의50 산동네에 살고있다. 동네주민들에 의하면 陸씨는 성품이 원만하고 인자한 노인으로알려져있다.

改印屆내자 行員시간끌어

두통장 딴이름、印鑑만 尹甲富것

은행창구 직원의 침착과 기지로 결정적인 단서가 잡혔다.

陸씨가 제일은행 退溪路지점에 나타나 창구직원 林相赫씨(21)에게 문제의 정기예금증서 3개를 제시하며『인감을 분실해 인감변경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증서들은 모두 지난7월 18일발행된 1년만기 우대가계 정기예금증서로 각각 김종욱과 朴英姬명의로된 2백만원짜리 2장과 이영숙명의의 1백50만원짜리 1장이었다.

은행측은 尹보살 피살사건의 현장발견당일부터 경찰로부터 尹보살소유의 예금증서를 갖고오는 사람이있으면 신고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을 받고있었는데 문제의 증서를 가져온것을 발견한 林씨는 예금증서를 보는즉시 尹씨것임을알고『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한뒤 곧 담당 宋惠根대리(31)에게 이사실을 알렸고 宋대리는 다시 徐章鎬차장(41)에게 보고했다.

徐차장은 宋대리를시켜 龍山경찰서에 신고하는한편 陸씨를 응접실로 안내, 『사고신고된 증서여서 신고자에게 연락해 확인해야겠으니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경찰로부터『시간을끌라』는 부탁을 받은 徐차장은 陸씨에게『누구로부터 이증서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陸씨는『전기공사업자에게 채권관계로 받았다』고 대답했다. 徐차장이 다시『그러면 증서를 준사람을 만날수있느냐』고 묻자 陸씨는『오늘은 안되지만 내일이면 만날수있다』고 말했다는것.

連行 48시간동안 上部報告안한 龍山署 진상조사중

高여인 관련단서 못잡자 保安만

서울시경은 16일 龍山경찰서가 보살 尹景花씨 이름으로된 예금증서를 은행에 들고왔던 사람을 연행, 수사를하면서도 이를상부에 보고하지않은 경위에 대해 진상을조사중이다.

尹보살 피살사건 수사를 맡았던 龍山경찰서는 지난14일 은행측으로 부터 신고를받고 陸씨와 李씨를 연행, 사건관련여부와 예금증서 출처에대해 조사하면서 이미 자신들이 범인으로단정, 구속기소한 高淑鍾씨(46·여)와의 관련쪽으로 조사해왔으나 별단서를 잡지못하자 철저한 보안을 앞세워 상부에도 보고하지않았던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시경은 高씨를구속한 용산경찰서가 예금증서출처수사를 선입견을갖고 벌일가능성이 많을것으로 보고 이수사를 시경강력계에서 직접담당하도록 지시했다.

趙仁宰、전기기술자

趙仁宰란인물은 전기기술자 1급 면허소지자로 10여년전 전기가설공사중 전신주에서 떨어져 중상을입은뒤 직접공사를 할수없게되자 한전·철도청·조달청등에서 낙찰 받은 전기공사 업자들의 잔심부름을 도와주고 용돈을얻어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泰鉉 생계어려워

麻浦區孔德洞38의159전세집에 사는 李泰鉉씨는 전기공사등 공사하청업을 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족들은 李씨가 무엇을 하는지 모를만큼 집안에서는 사업얘기를 한적이 없다. 李씨의 부인은 孔德시장에서 바느질을 해 생계를 돕고있다.

올림픽經費 3천5백억

政府서 추산

정부는 오는88년 서울에서 개최될 올림픽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를 3천5백34억5천5백만원으로 추산하고있다.

문교부가 16일 국회문공위에서한 「88년서울올림픽개최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이 추산경비는 당초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요구한대로 각종시설을 마련하고 운영할경우에 필요한경비 6천1백36억1천8백만원보다 2천6백여억원이 적은액수이다.

문교부는 올림픽소요경비의 내역으로 ▲경기장보완비 1천8백75억2천7백만원 ▲기자촌·선수촌 건설및 통신시설비 27억7천5백만원 ▲조직위건물·주차장시설비 1백26억원 ▲부지매입비(34만평) 5백10억원 ▲운영경비 9백95억5천3백만원으로세분하고 이를 위해 ▲방송중계료 6백75억원 ▲입장료및부담금 98억원 ▲대회운영수입금 1백36억9천4백만원 ▲부지매각대금(22만평) 1천1백억원 ▲국가보조금등 1천5백24억6천1백만원으로충당한다고 보고했다.

문교부는 또 서울종합운동장 건설에 모두 1천1백67억원이 소요되며 이미 3백억원이 투자됐고 나머지가운데 2백49억원은 서울市부담으로, 1백18억원은 國庫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北韓의 서울 올림픽 방해공작에 사전 대비하기위해 86년 아시아 경기대회의 유치가 필요하며 이를위해 7백43억원의 개최 소요경비가 추산된다고 말했다.

감사의 말씀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지난8일부터 6일간 양로원 건립추진위가 주최한 양로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현대작가 초대전은 뜻깊은 여러 교포님들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 그리고 미술 애호가들의 협력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민여러분들 기대만큼의 큰 성공은 아니였읍니다만 교민여러분들의 양로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호응은 저희들 건립위에, 큰 용기와 보람을 주셨기에 이번 전시회를 통한 또다른 의미의 성공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위해 물심양면의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원여러분들, 기타 협조해주신 교포사회 여러단체의 어르신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시회에 대한 결산보고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번 전시회에 대한 재반경비가 정확히 밝혀지는 대로 지상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읍니다만, 우선 이번 전시회에서 작품을 구입하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크고 적은 협조는 먼장래 양로원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확실히 믿으며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981. 10. 15

작품구입하신분

이창희 송남성 박경택
심태섭 박철민 차선철
나상선 천용기 하소영
이학현 조남수 이석범
이동환 정철기 황철수
한상훈 정인기 김시몬
유영갑 이건길 차선겸
박수영 박노욱 김이열
차선행 김명규 최상수
김인환 주성한 SHERATON HOTEL
장추신 서동헌 김태진
최동주 서동준 유무창
이대환 강기웅 강준남
장석정 오상철 유 인
천중환

화환보내주신분

총영사관
한인실업인협회
용산고교동창회
톰 프린팅
임철원
와이즈맨 베타크럽
강윤모
Y. M. C. A.

DONATION

송기선 $ 100
김시몬 100
조충원 100

양로원 건립위원회 위원장 차선겸 이사장 천중환

올림픽1世紀
서울大會 계기로본 人類의 祭典 <9>
모스크바 美등 60여國 不參으로 상처
L A 民間主導의商業的운영모색
88年서울 올림픽開催에 많은 教訓될듯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80년은 희망적인 시대의 개막으로 기대를 갖게했다. 그러나 1980년의 제22회 올림픽은 국제분쟁으로 조각나고 올림픽정신은 정치적 반목으로 비참하게 짓밟혔다. 올림픽근세사에 이같은 절대적 위기는 처음이었다.

52년 비로소 올림픽운동에 가담한 공산종주국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처음 올림픽이 열리게 되어있었다. 올림픽해의 벽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의 反蘇시위를 탱크로 눌렀다. 美國의 카터대통령은 모스크바·올림픽의 보이코트를 제의, 美國을 비롯한 日本, 西獨등 자유세계의 60여개국이 올림픽에 불참했다. 그러나 카터의 거부는 올림픽정신에만 치명적인 손상을 가했을뿐 아프간사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못했다.

모스크바에는 주최국 소련을 비롯한 東獨,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등 東歐공산국들과 英國,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濠洲등 일부 서방국가등 80개국 6천6백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막됐다. 英國, 프랑스등 유럽10개국은 입장식퍼레이드에 불참했으며 스페인등 일부국가들은 국기없이 입장했다.

모스크바에서 LA까지

美國은 4년동안 땀흘렸던 불참국선수들을 위로하기위해 곳곳에서 종목별 대항올림픽을 열었으나 큰 호응을 얻지못했다. 오히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장래를 우려케하는 무모한 짓이었다. 그리스는 올림픽을 영구히 그리스에서 열도록 주장하기도했다.

美·日·西獨등과 경쟁없이 벌어진 모스크바·올림픽에서 소련의 알렉산드르·디티아틴은 남자체조사상 최초의 만점을 기록하며 개인종합에서 우승, 단체·3종목경기서의 金메달추가로 5冠王이 됐다. 그러나 소련심판들의 텃세로 판정시비가 잦았다. 몬트리올의 요정 나디아·코마네치도 소련의 엘레나·다비도바에게 개인종합 타이틀을 뺏겼으며 이로인해 잡음이 일어났다.

東獨의 치에르핀스키는 아베베·비킬라에이어 두번째로 마라톤2連覇를 이루었다. 쿠바의 테오필로·스테벤슨은 복싱헤비급에서 사상최초로 3連覇의 기록을 세웠다. 인종차별로 올림픽에서 추방됐던 로디지아는 흑인주권국가 짐·바브웨로 새로이 등장, 여자하키에서 감격적인 金메달을 차지했다.

모스크바·올림픽에대한 美國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 소련은 올림픽에서 한마디의 정치적인 반박을 하지않았다. 폐회식에서는 다음 올림픽개최국 美國의 성조기대신 로스앤젤레스市旗가 올랐다.

조기대신 로스앤젤레스市旗가 올랐다. 위원회의 숨가쁜 준비작업소식이 벌써 세계스포츠에 올림픽무드를 일으켜놓고 있을 뿐이다.

LA조직위원회는 소련의 아기곰 미샤대신 美國의 국조(國鳥)인 독수리 샘을 올림픽·마스코트로 내놓았다. 조직위원회의 피터·우에버로드회장은 『이제 러시아곰은 겨울잠에 들어가고 여기 독수리 샘아 왔다』고 상징적인 소개를 했다.

샘은 성조기를 상징하는 빨간 줄무늬, 오륜마크장식의 모자를 쓰고 나비넥타이, 빨간상의를 걸친 노랑색부리의 독수리다. 약3개월간 월트·디즈니의 만화가들이 치열하게 경합, 마침내 로버트·무어가 이작품을 내놓았다. 로버트·무어만해도 20여개의 美國과 로스앤젤레스를 상징할수 있는 심벌을 구상, 샘을 찾아냈다. 밝고 명랑하며 따뜻함을 풍기게 최선을 다했다는 무어는 샘이 전세계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를 기원했다. 털과 인조섬유로 실제 제작된 샘의 키는 2m27cm(모자포함), 폭80cm, 무게22.5kg이다.

LA조직위는 또한 올림픽마크로 성조기에서 따낸 靑·紅色의 「움직이는 별」을 선정했다. 「움직이는 별」은 올림픽주자에서 탈피해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은 흑자재정을 목표로 약50여개의 기업체와 스폰서계약을 맺고있다. 따라서 LA올림픽은 민간주도의 가장 상업적인 올림픽의 색채를 띠게 될것으로 보인다.

유명한 햄버거 메이커인 맥도널드는 올림픽·스폰서로 南加州대학내에 4백만달러를 들인 수영경기장을, 경기장내 상점개설권을 가진 사던랜드공사는 UCLA에 4백만달러짜리 벨로드롬을 짓게된다. 코카·콜라는 지원금과 주스를, 제너럴·모터스도 지원금과 공용승용차로 5백대의 빅을, 의류메이커 리바이·슈트라우스는 1만4천명 조직위종사자들의 유니폼을 제공하고 올림픽·마스코트와 마크를 사용하게된다. ABC는 올림픽소요예산 4억2천5백만달러의 반이 넘는 2억2천5백만달러로 중계권을 획득했다.

조직위는 가장 큰 재정부담이 되던 올림픽의 각종 경기시설을 기존시설의 보완, 스폰서들의 참여, 민간시설의 무료제공으로 착착해결, 흑자올림픽의 계획을 성공시켜가고있다. LA올림픽은 1988년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열릴 서울올림픽에 많은 교훈을 가르쳐줄것으로 보인다.

◇84년 LA올림픽 경기장소 ▲LA메모리얼·콜리세움=육상 ▲도저스·스타디움=야구(시범) ▲포럼=복싱 ▲스포츠·어레나=수영 ▲카누·조정=레이크·캐지터스 ▲사이클=캘리포니아주립대학 ▲승마=샌터·애니터공원 ▲펜싱=롱비치·컨벤션·센터 ▲축구=로즈·보울 ▲체조=UCLA ▲핸드볼=캘리포니아주립대학 ▲유도=UCLA ▲수영=南加州대학 ▲배구=롱비치·어레너 ▲역도=로열러·매리마운트대학 ▲레슬링=애너임·어레이너 ▲요트=롱비치·머리너 ▲하키·사격·테니스(시범)=미정 【方錫絢기자】 <끝>

◇LA올림픽·마스코트독수리「샘」。

◇LA올림픽·마크「움직이는 별」。

한국、스페인과 오늘 첫對戰
世界J排球 蘇聯 強勢에 2連覇 낙관불허

한국은 17일부터 멕시코시티에서 벌어지는 제2회 세계주니어여자배구선수권대회에서 B조에 편성돼 개막일 상오9시30분(한국시간) 스페인과 첫경기를 갖는다.

제1회대회(77년·브라질)2連覇를 노리는 한국은 쿠바·캐나다·스페인과 함께 예선B조에 속해있으며 18일 쿠바와 예선 2차전을, 19일 캐나다와 예선최종전을 갖는다.

세계 15개국팀이 출전한 이번대회는 4개조로 나뉘어 리그로 예선전을 가진뒤 각조 상위2개팀이 준결승리그에 오르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을 위협하는 그룹은 中共·蘇聯·루마니아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中共은 한국보다 5cm가 더큰 179cm의 평균신장을 가졌으며 세터 楊錫蘭은 179cm의 장신으로 볼배분 뿐만아니라 오픈공격도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있다. 또한 1회대회때에 비해 蘇聯·루마니아등의 전력도 급상승, 한국의 2連覇는 낙관을 불허하고있다고 대표단이 알려왔다.

◇한국팀 예선전 일정 ▲17일(한국시간)=對스페인 ▲18일=對쿠바 ▲19일=對캐나다

◇출전팀예선조 ▲A조=멕시코·인도·호주·아르헨티나 ▲B조=한국·캐나다·쿠바·스페인 ▲C조=日本·브라질·볼리비아·푸에르토리코 ▲D조=소련·중공·페루

WBA、11월7일 미하라·프래토 타이틀決定戰

【東京·로체스터14日聯合=聯合】WBA(세계권투협회)라이트미들급 1위인 日本의 미하라·다다시와 동급2위인 美國의 로키·프래토가 오는 11월7일 공석중인 타이틀결정전을 벌인다.

WBA 라이트미들급은 타이틀 보유자였던 슈거·레이·레너드가 토머스·헌즈와의 대전에서 승리한후 타이틀을 내놓음으로써 챔피언자리가 비어있었다.

미하라와 프래토는 각각 14승과 24승무패의 전적을 갖고있는 강펀치의 소유자들이다.

한편 WBA밴텀급챔피언인 美國의 제프·챈들러는 오는 12월10일 日本의 무라따·에이지로를 맞아 아틀랜틱시티에서 4차타이틀방어전을 벌인다. 챈들러는 지난4월 東京에서 벌어진 무라따와의 3차방어전에서 무승부로 챔피언벨트를 지켰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3개組 準決진출
亞洲테니스 混合複式서 최소 2·3位는 확보

【방콕16日=聯合】韓國은15일 1981년도 아시아 테니스선수권 혼합복식에서 李우룡·金男淑조와 田昌大·趙恩玉조가 日本과 泰國을 각각 완파하고 준결승전에 진출, 韓國선수끼리 결승진출권을 다투게됐다.

金春浩·韓恩淑조도 日本을 제압, 印度와 결승진출을 놓고 겨룬다. 3개조의 준결진출로 한국은 최소한 2·3위를 확보했다.

남자복식 2회전에서는 田昌大·宋東煜조와 李우룡·金春浩조가 泰國과 파키스탄을 각각 2-0으로 제압, 8강에 올랐다.

남자단식에 출전한 李우룡, 田昌大, 金春浩와 여자단식의 趙恩玉, 薛旻敏, 金男淑은 2회전서 승리, 16강에 모두 들어갔다.

◇2일째전적
▲남자단식2회전 李우룡 2-0 라틴 / 金春浩 2-1 스와리 / 田昌大 2-0 안란
▲여자단식2회전 趙恩玉 2-0 마리사누 / 薛旻敏 2-0 찬디다 / 韓恩淑 2-0 [illegible]
▲남자복식2회전 李우룡·金春浩 2-0 나이남·[illegible] / 田昌大·宋東煜 2-0 수추·[illegible]
▲혼합복식8강전 韓恩淑·金春浩 2-0 나이도우 / 趙恩玉·田昌大 2-0 미시와 / 金男淑·李우룡 2-0 우세·[illegible]

나의 이력서
윤치영 ㉑

港都의 임시大領

釜山으로 가는 밤차안에선 萬感이 오갔다. 서울에서 정신없이 피난을 내려오면서 도중에 만나고 본 피란민들을 생각하니 울분과 비애와 증오가 한데엉켜 울음이 터졌다. 28일에는 漢江다리까지 끊겨버렸으니 무턱대고 「안심하라」는 방송만 믿고있던 서울시민들의 절망감이 오죽 했을 것인가. 뒤에 안 일이지만 한강다리는 당초의 계획보다 먼저 폭파됐다는 것이다. 무엇이 급해서 서울시민의 피란의길을 미리 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듯했다.

그러고 당자들은 미리 내뺐던 나중에 漢江下에서 부역했다고 피란을 못간 무고한 사람까지 다달질했으니… 나중에 한강다리폭파 책임자로 崔昌植대령을 사형집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을때 가슴이 아프고 허망하기 짝이없었다. 어찌 그책임이 명령에 죽고사는 군인에게 있을것인가. 그 명령을 내린 고위책임자는 왜 가만 두는가. 6·25당시의 책임을 논한다면 그累國에 말할수없는 구구한 사정이 많으니 一筆難記라고 말할수밖에없다.

釜山에 내려가 나는 평소잘아는 申泰權검찰에 짐을풀고는 곧바로 慶南도청으로가서 도지사, 도경국장, 부산경찰서장등과 비상회의를 열고 美軍영접과 안내, 치안문제등을 협의했다.

釜山의 분위기는 살벌하게 느껴졌다. 赤色분자가 많이 있다고 했다. 밤엔 마치 「인민공화국」에 들어온 느낌마저 들었다. 만일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면 그냥 함락할 것같은 착각이 들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나는 당시 부산지구사령관인 李鍾贊대령을 만나러 그가 있는 사령부로 찾아가니 그는 부하없이 홀로 있었다.

부산에선 金斗漢과 해방후 반탁, 反共운동을 했던 潘星煥동지를 먼저 만났고 이어 李寬洙, 金昌均등 옛날의 청년동지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우리는 7다방을 본부로 모였다. 동지들과 함께 나는 大韓義勇軍을 조직했다. 내가 총재고 金斗漢이 단장이 됐다. 우리는 도지사등 기관장의 후원을 얻어 大韓義勇軍활동의 경비를 마련하고 동지들을 모았다. 동지들이 8백여명에 이르렀다. 나는 국방복을 입고 다녔는데 釜山에서 大領으로 통했다.

同志들규합 大韓義勇軍조직 總裁에
7월1일 美스미드中領大隊 첫上陸

7월1일 드디어 美8軍선전대가 들어왔다. 스미드중령이 이끄는 대대가 최초의 상륙부대였다. 나는 美軍들의 차량에 우리 義勇軍을 태워 길안내를 시키는등 美軍의 進入을 도왔다.

워커장군휘하의 美軍들이 연달아 들어왔다. 나는 부산역에 사무실을 두고 參戰미군들을 맞아들이고 안내를 했다. 7월8일엔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東京에있는 맥아더장군이 [illegible] 해안은 완전봉쇄됐다. 그다음 트리그브리 유엔사무총장은 安保理의 결의에따라 地上軍派韓을 요청했다.

하루는 나의 옛동지인 韓哲民소령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 슬픈 마음을 가누지못하고 있는데 죽었다던 그가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나타났다. 우리는 어찌나 반가운지 얼싸안고 울었다.

또 어느날 부두에 나갔더니 뚱뚱한 미군중령이 어떻게알고 날 찾아왔는지 『당신 尹致暎씨 아니오? 당신을 10일동안 찾았소』하며 인사했다. 맥아더사령부에서 비밀사명을 띠고온 정보장교 와트중령이었다. 와트중령은 북한에 투입하는 특수부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협조해달라고했다. 그는 5만달러를 내밀면서 바꿔달라고해 국제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꿔주었다.

나는 韓哲民동지에게 그사명을 맡겼다. 우리는 影島에있는 요새지에 특수부대를 만들었다. 얼마안가 본격적인 게릴라활동이 벌어졌다. 특수부대들은 속속 항공기를 타고 北에잠입, 北의 군사시설, 철도, 교량등을 폭파하고 인민군을 게릴라식으로 공격했다. 이와함께 北에서 민심을 교란시키고 정보수집활동도 벌였다.

특수부대에서는 약1천5백명을 교육시켰는데 상당수가 희생당했다. 특수부대원중에는 江界여성도 많이 있었다. 그중엔 키가크고 건장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아기를 업은채 北에잠입해 들어갔다. 공산당에 惡刑을 당해 죽은남편의 원수를 갚는다고했다.

우리의 동지들중에서 또 孫鎭군은 서울에 잠입, 南山에서 비밀활약을 하고있던 李龍文소장과 연락하며 9·28수복때까지 맹활약을했다. 孫鎭은 당시 光化門통 金甲淳씨집에 피신해있다가 그집이 폭격당해 위기에 놓인 朴順天여사를 근처 美氏의 집으로 피신시키는등 많은 인명을 구출했다.

나는 釜山에서 美軍지원과 義勇軍활동을 벌이는 한편 해외선전국 탁부에 나가 라디오로 외국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외국기자들을 만나 홍보활동도 했다.

[訂正] 나의 이력서 14일자 ⑦회와 15일자 ⑧회는 ⑧회와 ⑦회로 착오됐기 각 바로 잡습니다.

◇유엔安保理결의에 따라 속속 派兵된 友邦참전兵力. 나는 釜山부두에나가 이들을 迎接하는 책임을 맡았다.

青少年축구 참가중 루마니아 蹴球선수 1명 멜번서 行方감춰

【멜번15日聯=聯合】濠洲의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루마니아팀의 선수 1명이 멜번에서 잠적, 행방불명상태에 있다고 대회관계자들이 15일 밝혔다.

조지·월리스 빅토리아州축구연맹사무국장은 루마니아팀의 주전수비선수인 제호르헤·비스크레아누(20)가 예선경기를 치른 멜번에서 잠적, 다음경기차 15일 아들레드로 떠난 루마니아팀과 同行하지못했다고 밝혔다. 루마니아팀관계자들은 비스크레아누의 실종을 확인했다.

루마니아는 16일 아들레드에서 英國과 3·4위전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월리스사무국장은 비스크레아누가 14일 2명의여자와 함께 숙소를 떠나는것이 목격된후 행방불명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상점에 있는 신발은 모두 신어 보셨읍니다요, 사모님들"
"내가 좋아하는 신발이 바로 저기에 있네" "그건 내꺼야"
"난 네 신발이 좋아" "그래, 그럼 바꾸자구"
"마치 새신발을 산것 같아!" "값도 훨씬 싸게 말이지!"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流星의 賦 <210>
李炳注 作 李友範 畵

何處秋風至 ⑧

이영이 청여림의 반의(叛意)를 안 것은 청여림이 그 문하생들에게 『충(忠)에도 두가지가 있으니 청충(淸忠)과 탁충(濁忠)이 있다. 현명한 군주를 모시는 것은 청충이고, 암우(暗愚)한 군주를 군주라는 이름만으로 모시는 것은 탁충이다. 마땅히 장부는 탁충하지 말고 청충에 힘써야 할것이되 만일 청충할 기회가 없으면 장차 청충할 길을 찾아야 하느니라』했다는 말을 전주인 이지호(李之鎬)로부터 들었을때이다. 이지호는 종실의 한사람으로서 이영과 같이 무관(無官)으로 있었는데 호주호학(好酒好學)한 한량이었다.

이영은 이 말을 듣자 이지호에게 『여림이 그런 말을 하더란 소릴 이발에게 해보게. 뭐라고 하는가』하고 시켰다.

이지호와 이발은 서로 아는 사이였다. 그래 자리를 만들어 이지호가 넌지시 여림의 얘기를 꺼내 이발에게 들어보았더니

『그 말이 무어 나쁜가. 청여림의 말은 지당하이』

하는 답이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이발은 이지호가 있는 자리에서 교생(校生) 번통호, 방우수등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청수찬은 걸출한 대인물이다. 자네들이 가보면 알것이다. 근자에 청수찬을 헐뜯으려는 놈들이 있는모양이다만 그것은 서인들의 모략이며 주로 율곡의 제자들이 지어낸 모함이다. 내게 여림과 절교하라고 권하는 자들이 있는데 실로 가소로운 일이다. 하기야 소인들이 어찌 대인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이영은 이 말을 듣고 마음 속에 기하는 바가 있었다. 홀지남에게 탐사의 일을 맡긴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홀지남이 전주를 향해 떠날 때 이영이 충분한 자금과 마패(馬牌)를 주며 다음과 같이 일렀다.

『자네에겐 암행어사로서의 편의는 제공하되 권능이 없다는 것만 알아라. 이 마패는 자네의 생명이 위급할 때만 쓰고 관의 추궁이 있을 때만 보여라. 그리고 여림의 죄상을 탐사하는 이외의 짓은 일절 해선 안된다. 단 인지도(人之道)에 어긋나는 일일 경우엔 묵과해선 안된다. 그러나 그것도 여림의 거처와 멀어, 자네의 신분이 탄로나지 않을 경우에만 국한한다』

그리고 몇가지 주의가 있었다.

계남이 용인(用人) 세사람을 거느리고 전라도로 떠난 것은 2월.

가는 도중 계룡산에 들렀다. 가까스로 정여림의 글이 붙어 있다는 산사를 찾았는데 그 벽의 글은 누구인가 훼손해서 뭉개져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최근 쓴것인양 싶은 글이 있었다.

『도망성언자 鹿洙聖言者 필지당천벌 必至當天罰』

(성인의 말을 팔아 농단하는 자는 반드시 천벌을 당할 것이니라)

계남은 그것을 서첩에 적어넣게 하고 벽의 글은 뭉개도록 일렀다. 그런데 그날 밤 산중의 어느 암자의 방을 빌어 자는데 밤중에 기도 올리는 소리가 있었다. 계남이 가만히 일어나 기도하는 방 근처에 가서 귀를 기울였다.

『천지조화 신령님께 합장하여 비나이다. 진군(眞君)으로 하오시와 천하태평 이루소서. 진군이라 하오심은 정읍살내 섰소이다』

월드컵하키 男子J豫選 개막
한국、싱가포르와 激突

제2회 남자주니어 월드컵하키 아시아·오세아니아 예선전이 17일 홍콩에서 개막된다. 오는 25일까지 벌여질 이번대회에 출전하고있는 한국은 싱가포르 중공 호주 日本과함께 A조에 속해있으며 18일하오7시 싱가포르와 첫경기를 벌인다.

◇한국경기일정(한국시간) ▲18일하오7시=對싱가포르 ▲19일하오7시=對중공 ▲21일12시반=對호주 ▲22일12시반=對일본

◇조별 ▲A조=한국·싱가포르·중공·일본·호주 ▲B조=인도·뉴질랜드·홍콩·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오만

한국일보

美 레코드를 부숴라 전도사가주창

★…美國의 한 전도사가 전자오르간등으로 귀를 따갑게 하는 로크음악은 「악마의 소리」라 외치며 10대팬들에게 레코드를 부숴버리라고 종용하여 화제. 앨론·개리슨이라는 이 전도사는 美國내에 10개의 「레코드파괴」단체를 조직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악마와 같은 로크음악」레코드를 계속 부숴버리겠다고 선언했다.

훌륭한 광고는 훌륭한 신문을,
훌륭한 신문은 훌륭한 사회를 만듭니다

광고는 기사와 함께 신문의 얼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사로 가득찬 신문이더라도
생기가 없는 광고,
아이디어가 마른 광고는
그 신문은 절름발이식 보기 나쁜 얼굴로 독자들의 눈에 반영될 것입니다.
저희 〈한국일보-토론토〉는 6월1일 역사적인 일간지로 비약한지 29일 만에 우편파업을 당해 6주간이나 극심한 상황에 처했으나
훌륭한 광고주들의 성원결과 용기백배, 우편파업중에도 단 1호도 결간 없이 신문을 발행했읍니다.
좋은 광고의 덕분이었읍니다.
광고효과는 뛰어납니다. 즉 토론토·스타 같이 많은 부수를 발행하지는 않으나 전 교민중의 구독률은 전 캐네디안중〈스타〉지 독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본보를 이용했던 많은 비 교민광고주들도 광고효과에 놀라 계속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교민 사업가 여러분은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본보 광고란을 이용해 주시고
일반 교민들은
주위 캐네디안 업체에 본보의 존재를 알려 광고를 내게해 주십시오.
좋은 광고는 좋은 신문을 만들어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할 것입니다.

한국일보사 광고부 송광호·최성조·곽영신 삼가
대표전화: (416) 533-2361.

1981년
추계 한인친선 낚시대회

일 시: 1981년10월31일 상오8시30~하오4시(우천불문 강행)
장 소: BELLWOOD CONSERVATION PARK
(문의: 755-9902, 미스타 정, 298-7806 미스타 최)
시 상: 대어특등, 대어1등, 대어3등, 치어상, 장기상(이상 Pike에 한함)
애석상, 희귀상, 감투상, 부녀상, 아동상, 잉어상 이상 트로피및 부상
심사규정: 참가자는 현장에 마련된 심사본부에 와서 등록번호를 받을 것.
● 등록비 1인당 5달러, ● 1인2종 입상불가
● 1인낚시대 1개, 바늘2개 이하 사용
● 본인이 잡지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음
준비물: 각자 낚시대및 미노스, 지렁이, 떡밥등의 미끼 준비 할 것.
심사위원: 곽창수, 최남해, 이정호, 김종선, 김진상, 이장관, 백은범, 조지섭
대회장: 정 삼 열 심사위원장: 김 재 용
접 수: 김 종 근
찬 조: 블루어 안경(구진모), 트로피(김국일)

후 원: 총영사관, 한인회, 노년회, 외환은행, 한국일보, 민중신문, 뉴코리아타임스, 코리언저널 기타 업체

주 최: 한 인 낚 시 협 회

서울식품

교민을 위한 김장철

최대의 써비스! 최고의 저렴한 가격!

—물건이 매진 될때까지 세일합니다—

	REG.	SPEC.
● 불고기등심 최상급 Lb.	2.69	2.20(10파운드제한)
중 급 Lb.	2.49	1.96
● 갈 비 Lb.	1.69	1.29(BOX제한없음)
냉동갈비 Lb.	1.49	1.05
● 소 꼬 리 Lb.	1.35	.95
● 참기름 깡통(일본제품) A품	10.90	9.50
〃 〃 B품	10.50	7.40
● 명 간 장 1 gal.		6.90
● 양 잠 피 1 kg	2.25	1.80
● 삼양라면 1박스(50개)당 15봉지FREE (곧 도착예정)		
● 삼양냉면 1박스 5인용	24.00	19.00(1박스제한)
● 청수냉면 1박스 2인용	24.00	19.00(1박스제한)
● 오징어젓 Lb.		.80(특별가격)
● 멸 치 젓 Lb.	2.99	1.99
● 어리굴젓 Lb.	4.90	2.90
● 한국고추가루 Lb.	3.95	2.90
● 각종선물용상품(gift) —20% 할인		
● 마늘・생강---- ---- ---- ---- ---- ----		1.45(특별가격)
● 찹쌀고추장	2.50	1.99
● 된 장	1.50	.99
● 달걀(1다즌, Large)		1.25
가게하시는 분은 1다즌당 1.23 에 드림		
● 물 미 역	1.39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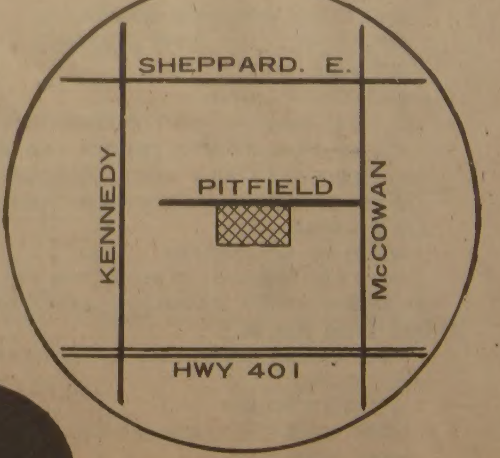
● 무, 배추(1박스 구입시)
김장용 갈치젓($2.90) FREE

● 무, 배추(2박스 구입시)
닭표간장($2.95) FREE

● 무, 배추(3박스 구입시)
한국산 굴($8.00상당 2파운드) FREE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